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위클리 2025년 6월 15일 발행 (370호)

05 ISSUE

국내 안경사들은 1~2년 내에 출시되는 AI 스마트안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08 NEWS IN NEWS

최근 다비치안경 측은 로폼에 법적인 자문 결과, 누진렌즈의 홈쇼핑 방송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사 제보 및 기고 문의

대 상 | 전국 안경사 및 업계 관계자
내 용 | 안경업계와 관련된 모든 내용
메 일 | Opticweekly@naver.com

안경원 필수품 종합백화점

안경공구 • 안경원 기계 • 광학기기
소모품 • 안경부속 • 안경줄 • 디스플레이
가방 • 안경케이스 • 안경서적
판촉물 • 안경테선글라스 등
안경원 취급 모든 제품 구비

나도코리아

TEL 053-353-9992 • FAX 053-351-4063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 www.nadokore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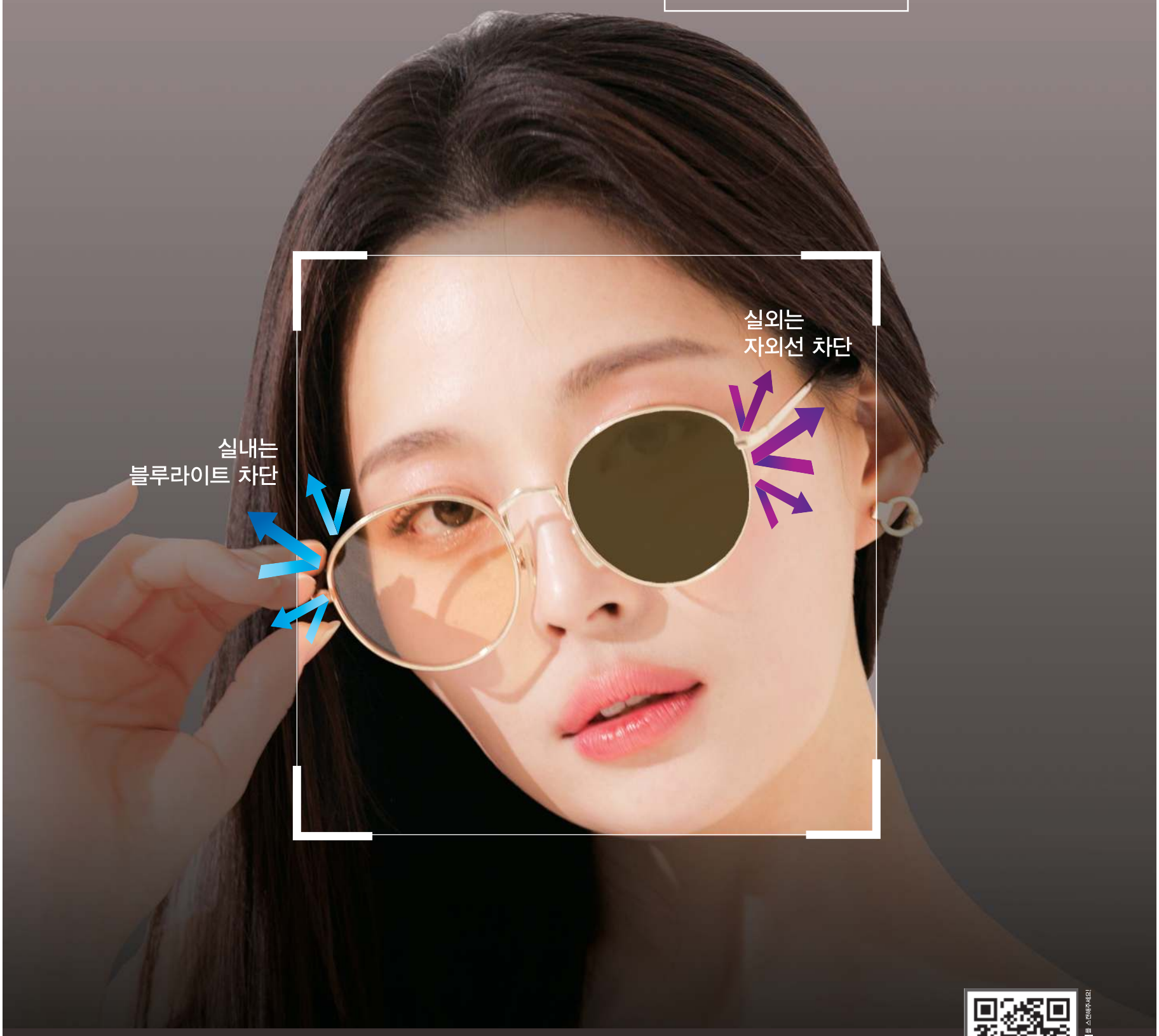


케미 안경 렌즈

눈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잡다!

케미 **포토-에이드**

코팅변색렌즈





그레이



카키 브라운

케미 포토-에이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케미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www.chemilens.co.kr

카카오톡에서 **케미렌즈** 채널 추가하고, 이벤트와 제품정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얇고 가볍다!

세계 최고 굴절률 1.76

두께

소재

왜곡

- **얇은 두께로 시각적 왜곡 감소**
- **바이오매스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렌즈
  (식물 등의 재생 가능한 유기 자원)

Episleaf™

バイオマス
使用部位:レンズ
No.220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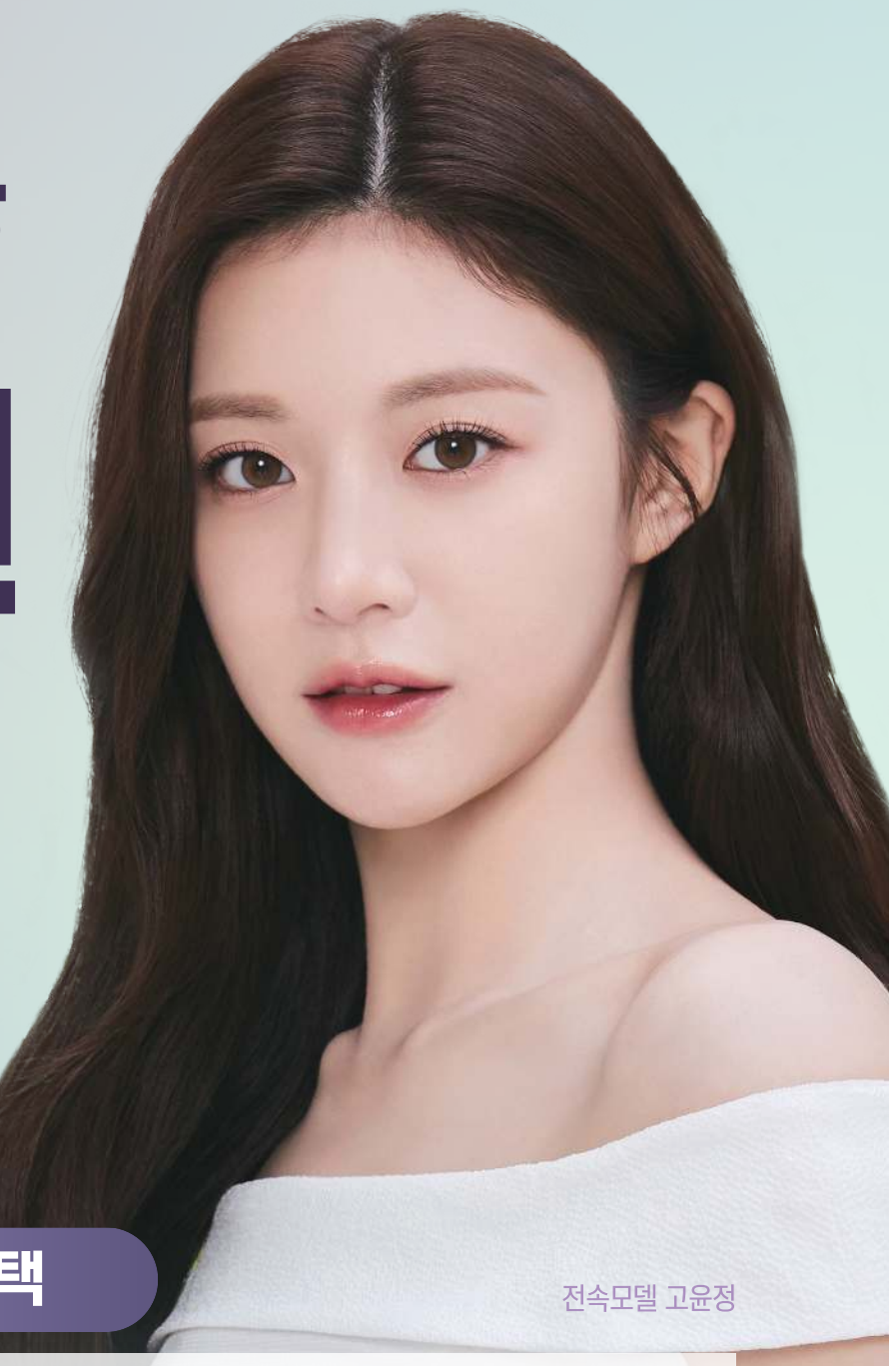
TOKAI

LENSME

"독보적인 프리미엄 렌즈샵 렌즈미
지금이 신규 오픈 최적의 기회!"

인테리어 비용 파격지원





전속모델 고윤정

신규 가맹점에 드리는 혜택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인기있는 렌즈미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한
오픈이벤트	**PB렌즈 2000만원**	**온/오프라인**
전폭 지원	위탁 지원	홍보 지원

우선 오픈 지역 (2025.05 기준)

서 울	명동 | 구로디지털단지 | 수유 | 신논현 | 오목교 | 이수 | 압구정 | 마곡 | 상암 | 왕십리 | 여의도 | 이태원
경 기	위례 | 평촌학원가 | 미금 | 모란 | 동탄 | 철산 | 하남 | 미사역
강 원	강릉 | 동해
충 청	서산 | 세종

가맹문의 김진우 부장 010-9487-9045

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위클리 2025년 6월 15일 발행 (370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EIN®
www.ahinkorea.com
1박스도 전국 무료배송
주문 전화 031)987-9173
EDP 01 18(W)×24(H) mm
EDP 02 24(H)×24(W) mm
EDP 05 18(W)×18(H) mm

최상급 안경!
편하게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1만원대 ~ 3만원대 최고품 직판
취급 브랜드
SPACE-e MARZO THE 편한
제품 구입방법
본사 샘플 발송 → 안경원 자유선택 → 선택 제외품 반송
GLASS OPTICAL
T. 053)354-3336 010-4489-2625
smartstore.naver.com/glassopticalmall

긴급 르포

코앞까지 온 'AI 스마트안경'… 안경원엔 약일까? 독일까?

AI 기술 탑재한 고성능 스마트안경 1~2년 내 출시… 안경사는 AI 스마트안경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연관성 발굴해야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AI(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혹자는 AI가 사회를 지배하고, 인간에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안경원 앞날은 희망적일까 아니면 좌절의 시작일까.

옛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속담처럼 안경원에 걱정꺼리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5~10년 내에 스마트안경이 안경원을 무용지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만약 10년 내에 스마트안경에 부착된 버튼으로 고객이 직접 자신의 시력에 맞게 안경렌즈 도수를 손쉽게 조절하면 안경사는 어떻게 될까. 또 만약 핸드폰 매장에서 도수가 들어간 스마트안경을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만약 고객이 자신의 안경렌즈 도수를 제작처에 알려주고 스마트안경을 가정에서 배송받으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지금 상상하는 일들이 5~10년 내에 국내 안경사들 눈앞에 펼쳐질지 모른다.

지금은 터무니없는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하겠지만, IT 전문가들은 AI시대가 본격화되면 변호사는 물론 은행원, 번역가, 택시 운전기사, 부동산 중개인 등 인간의 직업 7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나마 간호사나 수도 배관공 등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직종만 AI시대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사진은 기자가 '첨단 기능의 스마트안경'을 명령해 챗GPT가 만든 사진이다. 지금 현재 챗GPT는 그 어떤 사람들의 질문이나 명령어도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이미지 사진을 만들어낸다.

AI 기술 본격 전개되면 기존 직업 70% 소멸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안경은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혁신 기기로 알려졌다. 10년 전만해도 기술적 한계로 거대 기업인 구글조차 개발을 포기했으나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AI 기술이 펼쳐지면서 세계 굴지의 대기업 10여 곳이 스마트안경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1~2년 내에 출시된다는 스마트안경은 핸드폰까지 역사 속으로 몰아낼 만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최첨단 기기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안경 하나에 전화 통화부터 검색, 카메라, 마이크, 경로 안내, 번역, 음악 등등 최첨단 기능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음성 인터페이스 앱이 탑재되면 스마트안경을 개인 비서처럼 이용하는, 즉 스마트안경이 개인의 일정 체크는 물론 일일 업무와 계획까지 처리하는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IT전문가들은 AI 기술과 오픈AI社에서 만든 챗GPT(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를 '놀랍고 무섭다'고 말하고 있다.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단 2초 만에 분석해 요약본을 내놓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요술방망이가 바로 AI라는 것이다.

IT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intelligence)의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AI가 인간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말하고 있다. 1초마다 광속의 속도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진화 발전시키는 것이 AI기술이라는 것이다.

AI의 엄청난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 변호사 시험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실시된 미국 변호사시험에서 10%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러나 법률 자료 등을 업그레이드한 후 4개월 뒤에 실시된 시험에서 '챗GPT-4'는 90%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견습 변호사를 채용하는 대신에 AI에게 자료 수집이나 관련 판례 조사 분석 등 기초 업무를 시키고 있다. 앞으로 AI시대가 본격화되면 고소득자, 고학력자가 가장 타격을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괜한 경고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초거대 용량의 GPT-4는 자신이 가진 100의 능력을 스스로 1천이나 1만으로 만드는 '증폭기'가 되는 무궁무진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깊게 고민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 IT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챗GPT-4', 미국 변호사시험에 90% 합격

그러면 안경사는 인공지능 AI시대에 어떻게 변화 적응해야 될까.

전 세계의 이공대학을 대표하는 MIT(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은 2020년에 'AI전문대학'을 별도로 설립, 모든 학과의 대학생들에게 AI관련 커리큘럼을 이수토록 했다. 일례로 AI와 전혀 관계없는 철학과도 AI 관련 학점을 별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미 AI가 모든 학문과 산업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내 안경사들이 AI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스마트안경과 AI를 공유하면서 안경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AI 기술은 안경사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처럼 공기처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안경광학과는 AI와 스마트안경의 기능과 사용법 등 관련 커리큘럼을 개설해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 스마트안경을 핸드폰 매장이 아닌 안경원의 독자 판매로 만들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다. 또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사들의 보수교육 등에 스마트안경과 AI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 주요 회사들에게 세미나 개최 시 스마트안경과 관련한 교육을 배정·운용할 것을 독려해 안경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IT 전문가들은 '이미 세상의 모든 직업은 AI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앞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다. / 특별취재반

2025 실모 파리 오는 9월 26일 팡파레!

파리 노르빌팽트 전시장에서 개막… 주최측, '최신 콘텐츠 선보이는 최고 행사될 것'

세계 최고의 광학전으로 꼽히는 실모 파리가 오는 9월 26일 프랑스 파리의 노르빌팽트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엔 세계 900여 출품업체의 1,500개 브랜드가 선보이며, 참관객은 42개국에서 32,0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돼 세계 안경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17년 최초로 기획되어 세계 안경광학의 미래지향적 인사이트, 기술 혁신, 환상적인 디자인이 공존하는 광학전으로 평가받는 실모 넥스트는 올해에도 ▶안광학 분야의 주요 테마 설정과 탐구분야를 선정하는 다분야 전문가위원회 ▶업계의 최신 콘텐츠와 라이브 데몬 스트레이션을 선보이는 퓨쳐 올로지스페이스 등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파리의 노르빌팽트 전시장에서 펼쳐진 2024 실모 파리의 행사장 내부모습.

실모 사무국의 관계자는 "오는 9월에 세계 안광학 관련 최고의 볼거리와 미래 안경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실모 파리에 한국 안경계 관계자분들의 크신 참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02)564-9833

토카이 1.76, 친환경 소재에 최고 굴절률 자랑

석유 아닌 식물성 바이오매스 원료로 렌즈 생산… 고도근시에 최적 효과

토카이렌즈㈜(대표 김형진)의 대표 제품으로 세계 최고의 굴절률을 자랑하는 1.76 렌즈가 새로운 가치를 더한 친환경 렌즈로 재탄생했다.

토카이만의 독보적인 굴절률 1.76 렌즈는 기존의 석유에 기반한 플라스틱 렌즈와 달리 식물 등 유기자원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 원료를 채택한 친환경 렌즈로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고도근시 환자가 증가하는 근래에 세계 최고 굴절률인 1.76은 최대 54%까지 얇아진 렌즈로 무거운 안경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은 물론 외관상 렌즈 두께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 렌즈다.

또한 토카이 1.76은 두꺼운 렌즈로 인해 발생하는 시각적 왜곡을 최소화해 착용자의 시야 만족도를 높이고, 얼굴 윤곽을 왜곡 없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뛰어난 렌즈다.



토카이의 관계자는 "1.76 렌즈는 탁월한 광학 성능과 바이오매스 인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기여하는 친환경 렌즈로 사용자와 시환경 모두를 배려한 혁신 기술의 최고 렌즈"라며 "토카이는 지금껏 광학적 성능뿐만 아니라 ▶얇음 ▶가벼움 ▶편안함이라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온 전문기업으로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고기능 렌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2)337-8666

라운즈, '전 제품 위탁 제공 정책' 전개

맞춤형 지원 • 쇼핑 앱 고객 연결로 초보 창업자들에 인기

아이웨어 커머스 기업 ㈜라운즈(대표 김세민•김명섭)가 초보 창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 제품 위탁 제공 정책'을 전개, 안경원 창업에 나서는 예비 창업자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경원 창업은 제품 사입비와 브랜드 아이웨어의 구입으로 초기자금 부담이 크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때도 초기 비용과 취급 제품의 종류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라운즈는 모든 제품을 본사가 위탁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명품 브랜드 안경테부터 수입렌즈까지 제공해 창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더구나 라운즈의 이 같은 제품 위탁 공급은 업계에서 유일한 혜택과 함께 특히 가맹점 입장에서 재고 부담이 없기에 안경원 창업에 나서는 안경사에게 매우 매력적인 체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라운즈는 가맹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를 위한 전폭적인 마케팅 지원과 함께 옥외 광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국내 1위 아이웨어 쇼핑앱을 운영으로 수백만 명의 라운즈 온라인 고객을 가맹점으로 연결해 안정적인 고객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라운즈의 김명섭 대표는 "자사는 창업자의 부담을 줄여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각종 시스템을 적용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본사는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안경사회의 보수교육에 참여한 안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안경원 창업을 희망하는 안경사 중 약 70%가 프랜차이즈 오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의 070-8850-8319

마이오스마트 고객감사 '1+1 이벤트'

한국호야, 6월 한 달간 카멜레온 변색렌즈 구매 시 클리어렌즈 1조 증정

한국호야렌즈㈜(대표 정병헌)가 마이오스마트에 대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 감사 1+1 이벤트'를 6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마이오스마트 카멜레온 변색렌즈 구매 시 동일 제품의 클리어렌즈 1조를 추가 증정하는 소비자 혜택 프로그램으로,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 아이들의 눈 건강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햇빛에 민감한 어린이들을 위해 설계된 마이오스마트 카멜레온 렌즈는 실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색이 자동으로 조절되며, 자외선과 눈부심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춘 렌즈다. 한국호야렌즈의 정병헌 대표는 "어린이들의 눈은 성인보다 자외선에 더욱 민감하다"며 "자사의 이번 1+1 이벤트는 자외선 차단과 근시 억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기회로 많은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마이오스마트 취급 안경원에서 진행되며, 포스터 내 QR 코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88-5911

社 說

가격경쟁의 바람을 잡자

▶시장은 어느 곳이나 바람이 분다. 수년 전에 일어났던 부동산 투기나 미국의 닷컴 버블도 거센 바람의 하나다.

자본주의 최초로 광기가 넘치는 바람은 1930년대 중반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다. 튤립을 재배할 때 종종 매우 희귀한 색깔의 꽃이 피는 튤립을 부유층에 판매하면 100년간 먹고 살만한 돈이 생긴다는 열풍에 빈곤층부터 유명인까지 전 재산을 튤립 투기에 뛰어들었다. 그 당시는 튤립 철이 아니었음에도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몇 사람을 거쳐 판매한 튤립 가격이 1억 4천만원(2005년 기준)까지 나갔다. 더구나 엄청난 상금이 걸린 '구근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구근은 이종교배를 위해 엄청난 값에 판매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튤립 광풍이 불었으나 이 바람은 3개월 만에 수그러져 튤립 키우기에 뛰어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성상인과 중국의 관시(關係)는 평소 끈끈한 협조로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려와 조선시대 개성상인들은 철저한 상권 보호와 상혼(商魂)으로 인삼 재배와 가공, 광산 개발에 투자해 큰 부를 축적했다.

중국의 관시(關係)도 자신들의 상권 보호와 이익을 위해 서로 끈끈한 네트워크(관계망)를 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의 관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비방•폄훼하지 않고 일상적인 거래의 형성과 발전에 나섰다. 지금도 외국인이나 타인은 그들의 사업망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꽁꽁 묶여져 있다. 심지어 기업은 물론 기업과 정부 간에도 관시로 굳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안경을 조제•판매하는 직업군은 오직 안경사뿐이다. 더구나 국내 안경사는 정부에서 그 업무를 보장•부여함으로써 개성상인이나 중국의 관시보다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안경원은 가격경쟁 광풍에 빠져 수십 년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철저한 개인주의로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에서까지 안경사의 업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서로 반목하며 가격경쟁으로 업권을 파괴하고 있다. 자신만 살겠다는 개인주의로 가격경쟁만 일삼는 곳이 안경원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격경쟁의 끝은 이익을 감소시켜 영업환경을 파괴시킨다는 점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계의 전설인 로버트 멘셜은 자신의 저서 「시장의 유혹, 광기의 덫」에서 시장에서는 광기를 없애야 덫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기성 가격경쟁에 빠지면 덫에 걸린다는 뜻이다.

부디 국내 안경사들이 개성상인이나 중국의 관시처럼 비가격경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권을 보호하기 바랄 뿐이다. / 허선

Optic Weekly 아이디어가 많으면 불경기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소중한 제품, 빛나게 만들어 드리는 곳
광고 신청 • 구독 문의 02)313-5585

안경원의 새 먹거리 '스마트안경' 개발 한창

구글 스마트글라스, 10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하나?… 올해 연말에 공개 예정

세계 최고의 빅케크기업인 구글이 또 다시 스마트글라스를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해 전 세계 마니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0일 구글은 자사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I/O 2025'에서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스마트글라스의 특징과 런칭 시기 등을 공개했다.

이는 구글글라스를 통해 관련 산업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기능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2015년 사업 철수를 선언한지 정확히 10년만이다. 현재 구글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케어링 아이웨어, 워비파커, 그리고 젠틀몬스터 등 관련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자사의 스마트글라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의 컨퍼런스에서 구글XR담당 샤람 이자디 부대표는 "혁신적인 아이웨어 브랜드들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안드로이드 XR 기반의 스타일리시한 스마트글라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품의 정확한 출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올해 연말까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스마트글라스가 10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세계인의 시선이 올 연말에 집중되고 있다.



더 이상 가볍고 선명할 수 없다!

1.74 / 1.67 양면 비구면 싱글비전 렌즈

> 한미스위스광학의 양면 비구면 렌즈는 가장 얇고, 왜곡이 적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특히, 난시 도수에서도 더욱 뛰어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산 범위			
1.74 DAS		1.67 DAS	
SPH	CYL	SPH	CYL
−3.00 ~ −10.00	−10.00 ~ −4.00	0.00 ~ −10.00	−10.00 ~ −2.00
−3.00 ~ −12.00	−12.00 ~ −3.00	0.00 ~ −8.00	−8.00 ~ −4.00
−15.00	–	–	–



www.hslens.co.kr

다비치안경, '누진렌즈 홈쇼핑 광고 법적 문제없다'

로펌서 '불법 없다' 자문받은 후 홈쇼핑 광고… 다비치, '가맹점 위한 마케팅은 체인 본사의 의무' 주장

㈜다비치안경이 최근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에서 제기한 누진다초점렌즈 홈쇼핑 방송 중단 촉구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쇼핑 방송을 통한 고객 유치가 유인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 다비치의 주장이다.

다비치안경은 '우리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특히 특정 안경원에 방문을 유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자사의 홈쇼핑 방송은 누진렌즈 잠재고객들에게 노안의 증상과 이를 개선하는 누진다초점렌즈의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비치안경은 '자사는 이 방송에서 고객들에게 다비치안경 브랜드와 누진다초점렌즈 자체만 인지하도록 홍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안협 '홈쇼핑 중단은 안경사 단합 성과'

또한 다비치안경은 '자사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가맹점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를 홍보할 의무가 있고, 그 수단의 하나로 홈쇼핑을 통해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도록 자사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국내 전체 안경사와 안경업계의 상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케팅 행위는 타 경쟁사들과 일반 안경원 역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다비치의 주장이다.

이어 다비치안경의 관계자는 "자사는 홈쇼핑 진행 전에 이미 여러 로펌을 통해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안경원의 고객 알선·소개·유인 행위에 관한 여부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마쳤다"며 "다비치안경은 가맹사업자로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특히 홈쇼핑 측도 가맹사업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안경업소를 직접 홍보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사는 공문을 통해 대안협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협회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인 주장과 시위에 나서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안협은 그동안 대비치안경의 누진다초점렌즈 홈쇼핑 방송이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5월 29일에는 해당 홈쇼핑의 관계자들이 대안협 사무국을 방문해 허봉현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방송을 중단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봉현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에서 "이번 홈쇼핑 방송 중단은 안경사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낸 성과로서 협회는 앞으로도 저가체인은 물론 홈쇼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업권 침해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02)752-6177

국내 입원환자 1위는 '노년 백내장'

심평원, 10년 새 다빈도 질병 통계 '출생'에서 '백내장'으로 변화

국내에서 지난 10년간 입원하는 가장 큰 원인이 '출생'에서 '노년 백내장'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에서 발표한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건강보험으로 입원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33만 7,270명을 차지한 노년 백내장으로 2014년엔 25만 1,008명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 노년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0년 만에 22.6%가 늘어나 지난해엔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2위는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30만 8,287명), 3위는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몇 결장염(24만 4,125명), 4위는 기타 추간판장애(22만 212명) 등이 올랐다.

이 통계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상병명칭인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20만 7,398명)'이 다섯 번째로 기록되어 2014년엔 37만 3,597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순위가 떨어졌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당시 국내에서 이뤄진 백내장 수술건수는 63만 7,879건으로 최다 빈도 수술 1위 자리를 5년 연속 차지하고 있다.

문의 1644-2000



검찰, 온라인 픽업社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 대안협 '위법 계속 규명할 것'

대안협, 검찰의 윙크社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기소가 합법 의미하지 않아' 입장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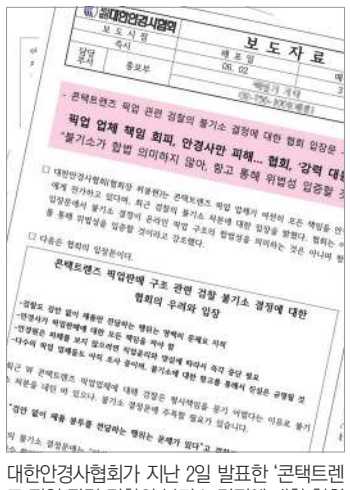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를 둘러싼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와 업체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컬러렌즈 예약서비스 윙크에 대한 8번째 고발 마저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를 결정한데 대해 대안협이 이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한 것.

대안협은 지난 2일 '콘택트렌즈 픽업판매 구조 관련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협회의 우려와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온라인 픽업 구조의 합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항고를 통해 위법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변함없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안협은 이 입장문에서 콘택트렌즈 픽업판매 구조 관련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협회는 깊이 우려하고,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 '검안 없이 제품만 전달하는 행위는 명백히 문제이고, 안경사가 픽업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안경원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직업윤리와 양심에 따라서 즉각 중단이 필요한 만큼 대안협은 다수의 픽업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불기소에 대한 항고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협, '검찰이 픽업 인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대안협은 이번 입장문에서 '최근 콘택트렌즈 픽업업체(=윙크)에 대해 검찰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불기소 결정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결정문에서 '안경원이 고객에게 검안 없이 제품 봉투를 전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픽업 행위가 법적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뿐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대안협의 주장이다.

결국 대안협은 검찰이 픽업서비스를 일부 안경원의 행위로 국한해 전체 사업구조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실상은 온라인 픽업 안경원 다수에서 해당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콘택트렌즈 픽업 관련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협회 입장문' 관련 보도자료의 일부.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판단은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미흡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8회 고발 • 고소 모두 무혐의 처분

그러나 이번 대안협의 입장문에 당사자인 윙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윙크의 관계자는 '검찰도 검안 없이 제품만 전달하는 행위를 문제로 지적했다'는 것에 대해 "협회가 고발자와 유착하지 않았다면 검찰의 불기소장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협회는 '윙크가 안경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지만 우리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에는 제휴 안경원도 포함돼 있고, 윙크에서 끝까지 법무 대응하여 모두 불송치, 불기소 무혐의가 확정됐으며, 이는 책임 전가가 아닌 윙크가 안경원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여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먼저 항고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협회에 묻고 싶고, 협회가 윙크를 고발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이미 경찰과 검찰의 오랜 수사과정을 통해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항고를 통해 일선 안경원을 다시 혼란케 하고 시장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어떤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윙크와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콘택트렌즈픽업연합회(KCPA) 측은 '당초 픽업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던 협회가 이젠 가담 안경사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달라졌다'며 "협회가 불과 얼마 전까지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안경원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온라인 픽업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거래구조'라고 못 박고, 서비스에 가담한 안경원은 불법 통신판매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이제 검찰이 픽업 업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기소 결정에 논리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픽업 업체가 모든 법적 책임을 안경사에게 전가하고 있고, 따라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일체 안경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협회가 픽업서비스 '구조'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던 기존 주장과 달리 협회의 '구조적 불법' 주장이 사법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경사 개인의 책임'으로 논점을 옮겨 서비스에 참여하는 안경사들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02)756-1001

“검찰도 검안 없이 제품만 전달하는 행위는 명백히 문제로 지적, 픽업업체는 모든 책임을 안경사에게 전가” 협회는 선량한 안경사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할것.

최근 콘택트렌즈 픽업업체에 대해 검찰은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불기소 결정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검안없이 제품 봉투를 전달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

검찰도 인정 불기소 결정문에서 검찰은 “안경원에서 고객을 상대로 검안 없이 제품 봉투를 그대로 건네주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가 이러한 문제 행위가 일부 안경원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전체 안경원의 일반적인 행태로 단정 지어 사업구조 전체를 기소혐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검찰은 어디까지나 '일부 안경원의 문제'일 것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기소사유가 불충분 하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픽업 안경원에서는 검안 없이 단순 전달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걸 안경사들은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2.픽업업체 판매협의 적극 부인, 불기소 처분은 의견서에 의한 형식적 해석

이로써 안경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당 픽업업체가 “단순한 보조 업무만 수행했을 뿐, 안경사에게 충분히 전달 책임을 고지했다”고 항변함으로써 모든 법적 책임을 안경사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판매책임은 이제 안경사에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3.의료기기의 픽업판매의 모든 무거운 책임을 안경사에게 전가

해당 픽업 업체가 판매 주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안경사가 판매 주체로 뒤 바뀌면서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어떤 이유로 무슨 제품을 주문하던 간에 픽업판매의 문제나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은 일체 안경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단순 ‘전달과 결제’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직접 ‘의료기기 판매’에 해당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제와서 픽업 업체가 안경사에게 주의사항 등을 형식적으로 고지하고 **제품전달 봉투를 바꾸는 등의 모습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방증이기도 하며, 이렇게 한다고 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자신들의 판매 책임을 더 확실하게 안경사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4. 불기소 처분은 기소 요건의 미충족 일뿐 합법은 아니다. 법적 판단은 아직 진행 중, 다수의 온라인 픽업 업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

이번 불기소 결정은 단지 ‘형식적 계약 관계’를 위반한 일부 안경원의 문제일 것이라는 전제조건하에 판단된 것일 뿐입니다. 이를 근거로 "온라인 픽업은 합법"이라 주장한 다면 왜곡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이달 안에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픽업 행위의 구조적 위법성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업체의 구조 자체가 합법이라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 안에는 여전히 문제 소지가 충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온라인 픽업의 합법이나 정당성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5.안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 해당

콘택트렌즈를 검안 없이 단순히 제품 봉투를 전달하는 행위는 **검찰이 문제로 지적한 것 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영업 행위**입니다. 이는 협회가 면허정지의 사유로 제시했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안경사의 품위손상 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안경사 협회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에 참여한 안경원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 징계회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입니다.**





6.안경사 스스로의 픽업 중단의 자정과 협회의 노력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윤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현명한 판단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올해 CJ홈쇼핑, GS홈쇼핑의 누진다초점렌즈 방송을 중단시킨 것은 법적 싸움 이전에 안경사들의 직업윤리 수호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이루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픽업 판매 문제 역시 **안경사 스스로의 윤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른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사법과 직업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다수의 선량한 안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J&J, '아•태지역 콘택트렌즈 리더즈 써밋' 관심 집중

세계적 전문가 참가해 다양한 관련 강의와 의견 제시… 전문가마다 멀티포컬의 다양한 유용성 강조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써밋의 다양한 강의 모습. 서울시 용산구 LS용산타워 28층에서 개최된 써밋의 오프라인 현장.

Johnson&Johnson



패널토론의 참여자들. 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 교육팀 이영완 이사, 노현철 안경사, 리캉리앤 검안사(싱가포르), 캐빈 슐츠 검안사(호주).

ACUVUE BRAND CONTACT LENSES

존슨앤드존슨(J&J)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콘택트렌즈 리더즈 써밋'이 지난 12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써밋은 '콘택트렌즈의 미래'를 주제로, 난시와 멀티포컬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혁신적인 전력 등이 공유돼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향후 난시 시장의 전방위적 확대 전망

이번 써밋에선 ▶비전케어 R&D 노안 및 난시 연구개발 담당, 글로벌 디렉터 지오바나 올리바레스 박사의 '난시 교정: 기본부터 최신 동향까지' ▶J&J 교육팀 글로벌 헤드 존 메이러의 '난시 재정의: 소비자의 더 만족스러운 난시 교정' ▶홍콩 제프 탕 옵토메트리스트의 '노안 소비자를 위한 해결책' ▶호주 마가렛 램 옵토메트리스트의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피팅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업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의로 전개되었다.

올리바레스 박사는 첫 번째 강의에서 토릭 콘택트렌즈의 시초부터 설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되는지를 설명해 참가자들이 토릭렌즈의 전반적인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어 등장한 존 메이러는 아태지역의 난시 유병률을 소개하며 '향후 난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을 확신한다'며 난시렌즈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강의에서 "난시렌즈는 분명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간에 이를 포기하는 소비자의 비율도 무시할 수 없기에 이를 방지할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며 "안경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난시 피팅의 툴이 개발돼 있으니 이를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제프 탕 옵토메트리스트는 안경사로서 노안 소비자를 위한 해결책을 전달했다. 그는 "난 처음 모노비전 렌즈를 사용하던 고객에게 멀티포컬 렌즈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멀티포컬 렌즈만 하면 시력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란 허상을 갖게 하면 안 되고, 멀티포컬 렌즈의 피팅에 따라 적응기간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다양한 임상사례를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나가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강사로 참여한 마가렛 램 옵토메트리스트는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피팅을 위한 고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제시했다. 램 검안사는 "고객에게 '평소 사용하는 안경보다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말보다는 '멀티포컬 렌즈를 통해 여러 안경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고객이 희망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고객에게는 전문용어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화하면 어느 순간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멀티포컬은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

또한 이번 써밋의 마지막 순서는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대표 이정현)의 이영완 이사가 사회자로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피팅의 어려움 극복하기'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는 노현철 안경사, 리캉리앤 검안사(싱가포르), 그리고 캐빈 슐츠 검안사(호주) 등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에서 자신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리캉리앤 검안사는 "환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멀티포컬은 시력교정의 여러 옵션 중 하나라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슐츠 검안사는 "아태지역에서 멀티포컬 렌즈의 착용률은 5%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안경사 등 안보건 전문가들이 고객에게 멀티포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다"며 "특히 멀티포컬의 각 제조사가 제시하는 피팅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현철 안경사는 동의를 표시하며 "제조사의 철학이 담긴 피팅 가이드를 충실히 따랐을 때 피팅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써밋의 마무리 인사를 맡은 APAC COS 아쉬시 콜리 시니어 디렉터는 "이른 아침부터 장시간의 강의를 지켜본 많은 안경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안경사 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와 관련한 다양한 맞춤형 피팅을 애용하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문의 acuvueprofed@its.jnj.com

ROUNZ FRANCH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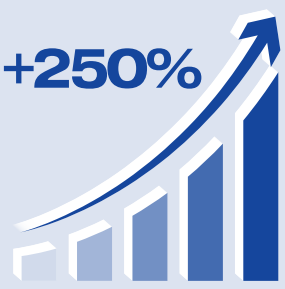
대세에 합류하라!

라운즈가 대한민국 안경원의 판도를 바꿉니다

매출

계속 줄어드는 손님,
점점 떨어지는 매출?

기존 매장 위치에서
라운즈로 바꾸고
매출 3배 성장!



제품

창업 시작부터 부담되는
수억 원대 상품 사입비?

사입비 0원!
브랜드 프레임 부터
수입렌즈까지 ALL위탁!



마케팅

투자 대비
실속 없는 홍보 비용?

네이버 1위 노출 보장!
플레이스, 블로그
최상단 노출!



라운즈미러

1인 매장은 체력이 벅차고,
인건비는 부담된다면?

인건비는 내리고,
객단가는 올리고!
AI 고객응대 시스템 지원



6월 한정 가맹 계약 이벤트

150만원 상당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숙박권 증정

- ✓ 톰포드 등 명품브랜드도 본사 공급 * 상권별 상이
- ✓ AI 고객응대 시스템(라운즈미러) A/S 평생 무상 지원
- ✓ 기업용 백신 '알약' 보안 프로그램 1년 무상 지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전국 100여 개 이상 제휴!
라운즈 프랜차이즈 성공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 지금 QR 찍고
> 홈페이지 보기

ROUNZ FRANCHISE 가맹 상담 | www.rounzfc.com 02-554-0326



럭셔리 아이웨어 그룹인 케어링 아이웨어에서 2025년 F/W 시즌을 겨냥한 새로운 라인을 공개하는 프레스데이 행사를 마련했다. 다가오는 F/W 시즌을 장식할 구찌 등 다양한 브랜드의 컬렉션이 소개된 이번 행사는 케어링 아이웨어만의 한 차원 높은 애티튜드를 과시한 이벤트로 수많은 국내 안경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진은 이번 프레스데이의 행사장 내부 모습이다.

케어링의 8色 감각… 2025 F/W 프레스데이서 '활짝'

구찌, 마우리 짐 등 대표 8개 브랜드 신모델 공개… 특유의 감성과 스타일에 안경사들 시선 고정



KERING EYEWEAR



케어링 아이웨어가 지난 4일 서울 익선동에서 2025 F/W 시즌의 프레스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케어링 아이웨어의 대표적인 8개 럭셔리 브랜드의 2025년 F/W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로 각 브랜드의 고유한 감성과 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아이웨어가 대거 공개돼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의 010-6394-7071

▲구찌(Gucci) – 이번 시즌 다양한 레트로 실루엣과 마스크형 선글라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상품 라인을 선보였다. 특히 스키 마스크 제품은 스트랩와 렌즈 부분의 로고 디테일과 함께 스크래치 방지 및 김서림 방지의 기능이 적용되어 라이프스타일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스트라스(크리스털 장식)와 GG모노그램 렌즈 디테일을 통해 브랜드의 독창적인 미학을 더했다.

▲발렌시아가(Balenciaga) – 특유의 대담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이번 시즌 신상에 담아냈다. 특히 'SUPERBUSY' 모델은 프레임 위에 또 하나의 프레임을 덧댄 이중 레이어 구조로 독창적인 실루엣을 완성해 개성 넘치는 비주얼을 공개했다. 또한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랩어라운드 디자인을 다양한 실루엣으로 재해석하여 기존 아이웨어 디자인의 영역을 과감하게 확장했다.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 더블 브리지 구조의 에비에이터 스타일에 렌즈를 뚫고 힌지 역할을 하는 매듭 피스 디자인을 재해석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철학을 반영한 프리컨슈머 아세테이트 폐기물을 100% 재활용한 리에이스(ReAce) 소재 사용이 눈길을 끈다.

▲생로랑(SaintLaurent) – 아세테이트 소재를 활용해 오발 프레임, 캣츠아이, 그리고 에비에이터 스타일 등 우아하면서도 대담한 실루엣을 드러냈다. 특히 생 로랑의 시그니처인 YSL 모노그램 디테일이 더해져 메종 특유의 세련된 감성을 강조했다.

▲까르띠에(Cartier) – 총 6개 주요 라인을 통해 다양한 아이웨어 스타일을 선보였다. 특히 상징적인 산토스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산토스 드 까르띠에' 라인에는 슬림한 직사각형의 옵티컬 프레임과 러버 인서트가 더해진 프런트 등을 선보여 컬렉션의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호평을 받았다.

▲끌로에(Chloé) – 더블 및 트리플 그라데이션 렌즈를 적용한 오버사이즈 스타일로 우아하면서도 레트로한 무드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그중에서도 '끌로에 아이코닉' 라인은 템플을 끌로에의 상징적인 레터링 로고 형태로 디자인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린드버그(LINDBERG) – 젠더리스 디자인에 무지개에서 영감을 받은 렌즈 컬러를 더해 한층 모던한 감각의 선글라스 컬렉션이 주목 받았다. 현대적인 사각 프레임의 림 시게(Rim Sigge)와 클래식한 판토 쉐입의 아세타늄 1054(Acetanium 1054)는 옵티컬 아이웨어 라인으로 다양한 컬러 조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마우이 짐(Maui Jim) – 케어링 아이웨어에 합류한 이래 네 번째로 선보이는 '에하('EHĀ)' 컬렉션을 공개했다. 마우이짐의 전 제품에는 독보적인 PP2(PolaziedPlus2) 렌즈기술이 적용돼 있으며, 하와이 자연에서 영감 받은 웨이브 패턴과 하와이안 전통 모티프 등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돼 있다. 또한 해변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템플에 다양한 그라디언트 팔레트를 적용한 '스페셜 캡슐 컬렉션'을 선보이며 기존 인기 컬렉션에 새로운 감각을 더했다.



OFFICIAL WEBSITE

플럼에디터(PLUME-EDITOR) 파트너십 대리점 모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www.plume-editor.com
070-4257-6102
#플럼에디터 #plume-editor

plume.editor
plume.Editor
blog.naver.com/plume_editor

OU:FINE 먼슬리 컬러렌즈 전격 출시!

으뜸50안경, 한 달 내내 더 편하게, 더 오래 즐기는 아이템 런칭… 자연스러운 무드와 하이라이팅 컬러까지





컬러렌즈 브랜드 오유파인(OU:FINE)이 한 달 착용이 가능한 OU:FINE 먼슬리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으뜸50안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신제품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컬러와 감각적인 포인트 컬러를 모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오유파인 먼슬리는 기존 원데이 제품에서 큰 사랑을 받은 램프 블랙과 시나몬 초코,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애쉬브리즈와 토피글로우까지 총 4가지 컬러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컬러는 은은한 하이라이팅이 더해진 디자인으로 애쉬브리즈는 차분한 웜그레이 톤으로 세련된 인상을, 토피글로우는 부드러운 모카빛으로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제품은 1팩 2PCS 구성으로 상시 1+1 이벤트를 통해 20,000원에 두 달간 착용이 가능하다. 소재는 퍼스펄린콜린(PC렌즈)으로 함수율 43%의 수분감을 유지해 눈에 부담 없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또한 컬러 교차 선택이 가능해, 기존의 자연스러운 컬러와 포인트가 되는 새로운 컬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일상 속 분위기 전환은 물론 다양한 스타일링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베스트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1522-1584

TOOLTIP Lens Edging System

툴팁 자동옥습기

‘동급 최강 성능! 탁월한 가공 속도! 다양한 가공 모드!’







INE-200 툴팁 자동옥습기



INT-200 툴팁 트레이서



INB-200 툴팁 블로커

optics 엠 와 이 옵 틱 스	미양광학 (서울/경기/인천/강원) 02-779-7400	CIL 광학 (서울/경기/인천/강원) 010-9055-1977	디아이광학 (대전/충남,충북) 010-8808-6252	동아메디칼 (대구/경북) 010-5380-9907	BG 메디칼 (광주/전라/제주) 010-3628-3788	한솔광학 (부산/경남) 010-3787-3289

Eye & Health Care NIDEK

모바일 홈페이지 miyangoptical.modoo.at NAVER 네이버에서 "미양광학"을 검색하세요.

검안 시스템



[제품 구성]
- 유니트테이블 OS-5010
- 자동포롭터 RT-6100
- 자동검안기 ARK-1
- 편광LCD차트 SC-1600P



니덱 편광LCD차트
SC-1600P



편광 LCD차트 (국산)



니덱 미러차트
SSC-370

자동 검안기
ARK-1 / ARK-1a



- 주/야간 시력 동시 측정
- AR, KM 측정 정확도 향상
- 컬러 틸팅 LCD 스크린
- 백내장 측정 기능 (ARK-1a)
- 조절력 측정 기능 (ARK-1a)

풀-오토 검안기
ARK-F



- 완벽한 풀-오토 측정 (턱만 올리면 측정 시작)
- 주/야간 시력 동시 측정
- 백내장 측정 기능
- 조절력 측정 기능
- 틸트&스윙 터치 LCD스크린
- 네트워크 기능 향상

자동렌즈메터
LM-7 / LM-7P



- 빠르고 정확한 측정 성능
- 5.7인치 컬러 터치LCD
- 다양한 측정모드 지원 (단초점, 누진, 콘택트, PD, UV, 프리즘 설계 모드)
- 오토-커팅 고속 프린터 내장 (LM-7P)

수차분석기(기본형)
OPD-SCAN III VS



- 고위수차 분석 기능
- 주/야간 시력 동시 측정
- 전문적인 분석 리포트
- 컬러풀한 분포도 맵
- 다양한 측정 기능 (AR, KM, 백내장, 굴절/각막 분포도, PD, PS)

수차분석기(고급형)
OPD-SCAN III



- 0~8차 상세 고위수차
- 이미지 생성 속도 향상
- 맵별 상세 서머리 제공
- 컬러풀한 분포도 맵
- 다양한 측정 기능 (AR, KM, 백내장, 굴절/각막 분포도, PD, PS)

안축장 측정기
AL-Scan M



- 안축장 길이 측정
- 케라토 측정
- MV-1(근시 관리프로그램)
- 틸팅 터치 LCD스크린
- 네트워크 기능

무패턴 자동옥습기
LEXCE Trend B



드릴링 자동옥습기
LEXCE Trend DB





- 산각 / 미니산각 (자동, 가이드)
- 홈파기 기능 (자동, 가이드)
- 면치기 기능 (면치기 양 조절)
- 패턴 데이터 저장
- 광택 기능 (산각, 무테)
- 드릴 기능 (B제외)

미양광학(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가길 30 (우 04527)
T_02)779-7400~2 / 02)752-8721 F_02)777-4730

영업이사 김창해 010.4491.4009
기 술 부 정민우 010.2465.6621

2025년 안경사 보수교육 광학기기 빅 이벤트!

검안세트 1

월 70 만원
36개월 무이자 (2800만원)
(10% 부가세 선납 후)



[제품 구성]
- 유니코스 포롭터 UDR-800P
- 유니코스 편광LCD차트 ULC-900P
- 니덱 검안기 ARK-1
- 검안테이블 OS-5010UD

검안세트 2

월 95 만원
36개월 무이자 (3800만원)
(10% 부가세 선납 후)



[제품 구성]
- 니덱 포롭터 RT-6100
- 니덱 편광LCD차트 SC-1600P
- 니덱 검안기 ARK-1
- 검안테이블 OS-5010UD

이벤트 상세 내용

- **이벤트 기간** : 2025년 3월~2025년 6월
-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부가세 10% 선납, 이율에 따라 월 납입금 변동될 수 있음)
- **검안세트1 + 자동옥습기 구입 시 무료 제공**
  유니코스 자동렌즈메터(220만원), 검안렌즈세트,
  검안경, 세척기, 히터, 수동옥습기, 기본 공구세트
  (330만원 상당)
- **검안세트2 + 자동옥습기 구입 시 무료 제공**
  니덱 자동렌즈메터(350만원), 검안렌즈세트,
  검안경, 세척기, 히터, 수동옥습기, 기본 공구세트
  (450만원 상당)

자동렌즈메터 ULM-900



NIDEK 자동렌즈메터 LM-7



TOOLTIP(툴팁)



월 50 만원
36개월 무이자 (1980만원)
(10% 부가세 선납 후)

LEXCE Trend B



월 74 만원
36개월 무이자 (2950만원)
(10% 부가세 선납 후)

LEXCE Trend DB



월 87 만원
36개월 무이자 (3500만원)
(10% 부가세 선납 후)

미양광학(주) 전국 대리점

CIL 광학	디아이광학	동아메디칼	BG 메디칼	한솔광학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부산/경남)
010-9055-1977	010-8808-6252	010-5380-9907	010-3628-3788	010-3787-3289

FOREIGN NEWS

정리_허정민 기자



'안경에 세계 유명 도시를 담다'

이란 출신의 스위스 디자이너이며 안경사인 Nirvan Javan이 런칭한 NIRVAN JAVAN이 아테네와 밀라노, 런던, 그리고 마라케시 등 각 도시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했다. 문화, 미학, 그리고 스타일의 공생을 담은 이번 신제품은 장인정신과 글로벌 영감에 의해 형성된 각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미국 VC, 선글라스데이 개최

6월 27일부터 한 달간 선글라스 효용성과 판매 증진 캠페인 벌여

미국 광학산업의 제조 및 공급업체들의 비영리 무역협회인 비전위원회(The Vision Council, VC)가 지난달 29일 '2025년 전미 선글라스의 날(National Sunglasses Day)'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계속되는 선글라스 캠페인은 눈 건강과 개인적인 스타일을 위한 필수 아이템인 선글라스를 홍보하는 행사다. VC는 캠페인 시작 하루 전인 26일 뉴욕의 록펠러센터에서 인플루언서, 업계 리더, 언론사 등을 초대한 파티에서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과 안경업계 혁신 등에 대한 논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VC의 관계자는 "이번 파티에선 자외선 위험과 선글라스 혁신, 스마트한 생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을 비롯해 엄선된 주요 브랜드의 선글라스 전시와 체험 존을 설치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국시장에 선글라스의 효용성을 적극 홍보해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에실로룩소티카, 미국서 생산할까?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생산공장 이전 검토… 고임금이 이전 걸림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작 안경 제조기업인 EssilorLuxottica 그룹의 생산시설 중 일부가 미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파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에실로룩소티카의 프란체스코 밀레리 CEO는 "미국 관세에 대응해 아시아 등에 산재한 생산시설 중 일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3~4개월 안에 이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에실로룩소티카의 이 같은 검토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수십 개국을 상대로 40% 이상 고율 관세의 적용을 발표한 때문인데, 태국과 멕시코 등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보유한 에실로룩소티카는 관세 인상 시 미국에 수출하면 소비자가격이 적어도 50% 이상 인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지의 이전을 고려하게 되었다.

에실로룩소티카의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미국에 여러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세계 여러 곳의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으로 통합할 경우 인건비가 현재보다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고민거리"라고 전했다.

밤에도 밝게 보여주는 콘택트 개발

中 과학기술대, 근적외선 변환하는 투시경 렌즈로 색맹에도 효과

야간 투시경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적외선을 이용해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개발됐다. 중국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은 지난달 22일 나노입자를 이용해 800~1600㎚파장의 근적외선을 사람이 볼 수 있는 400~700㎚의 가시광선 파장으로 변환시키는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Cell」에 발표했다.



해당 렌즈는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생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렌즈를 착용한 생쥐가 적외선이 나오는 상자보다 어두운 상자를 택한 반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생쥐는 두 상자 모두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실험을 통해 적외선 렌즈를 착용한 생쥐의 눈에 적외선이 명백히 보인다는 것으로, 연구진은 렌즈를 착용한 쥐의 동공이 적외선 빛에 노출되자 수축되면서 시각중추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중국과학기술대 신경과학과 쉐천 교수는 "이 기술은 빨간색 가시광선을 녹색 가시광선 등으로 변환해 색맹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물을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또한 이 콘택트렌즈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조방지마크를 읽는 등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실로룩소티카, 안과 플랫폼 인수

유럽 5개국서 운영되는 '옵테그라社'의 AI 혁신 플랫폼 계약

안광학 관련 세계 최고의 기업인 EssilorLuxottica 그룹이 지난 2일 영국,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네덜란드의 5개 주요 유럽시장에서 운영되는 고도로 통합된 안과 플랫폼인 Optegra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는 AI 기반의 혁신 기술과 웨어러블, 의료기기,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안과 솔루션을 포함하는 에실로룩소티카의 의료기술 전략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에실로룩소티카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술 전후 단계에서 AI가 지원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과 치료 및 선택적 시력교정시술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백내장 수술과 연령관련 황반변성 및 녹내장 치료, 굴절렌즈 교체, 레이저 시력교정수술 등이 포함되며, 공적 의료보험 적용 환자와 개인부담 환자 모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실로룩소티카의 폴 뒤 사이양 부대표는 "우리는 옵테그라 인수를 통해 종합적인 안과진료, 첨단 진단, 치료적 개입, 그리고 외과적 치료가 하나의 완벽한 플랫폼에서 통합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이를 통해 최첨단 시력관리기술과 치료법을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공해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거래는 규제승인 및 기타 관례적인 종결 조건을 거쳐 오는 2025년 후반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수와 관련된 재무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독일 AI 솔루션 'TPS' CE마크 획득

유리체내 주사 치료계획 효율성 상승… 안과의 온라인 치료 성큼

독일의 헬스테크 기업인 deepeye Medical사의 AI 치료계획 지원 솔루션인 TPS가 EU의료기기규정인 CE마크를 획득했다. 해당 솔루션은 유리체내 주사 치료계획의 효율성을 높여 환자의 중도 탈락률을 줄임으로써 실제 결과와 임상 데이터 간 격차를 줄이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딥아이 TPS는 200곳 이상의 망막센터에서 수천 건의 환자 사례를 통해 훈련되어 이를 통해 임상적인 검증을 완료했다.



딥아이 메디컬의 마누엘 오피츠 CEO는 "치료관리를 위한 최초의 예측형 AI 보조 솔루션인 TPS는 이제 안과 치료에서 유럽이 혁신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럽 전역의 안과의사, 검안사들에게 임상결과와 치료 순응도 향상을 위한 업무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안과의 온라인 치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CE(Conformite Europeenne)마크는 제품의 안전과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유럽 규격조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필수다. 이 마크는 해당 제품이 원산지에 관계없이 EEA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스위스 INVU, 모녀 공용 선글라스 출시

어머니와 딸의 취향 공유하는 선글라스로 기능도 최상

Swiss Eyewear 그룹이 대표 브랜드 INVU에 세대 간의 독특한 유대감을 기념하는 최신 패션 콘셉트의 모녀 선글라스를 공개했다. 아이코닉한 오버사이즈 타원형 프레임인 이 선글라스는 어머니와 딸을 위해 우아하게 가동된 마티에르와 고품질 폴리머로 제작돼 가볍고 편안해 하루 종일 착용하기에 이상적인 컬렉션으로 특히 스위스 아이웨어 그룹의 독점 초편광렌즈가 장착돼 뛰어난 선명도와 100% 자외선 차단 기능을 자랑한다. 인뷰의 관계자는 "이번 컬렉션은 트렌디한 반투명 파스텔 색조로 출시돼 장난기 넘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며 "우리의 이번 신상은 엄마와 딸이 아이웨어 취향을 서로 공유하는 스타일리시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수정체 '럭스라이프' CE마크 획득

바슈롬, 유럽서 '럭스라이프' 본격 판매… 토릭렌즈 버전도 곧 출시



글로벌 안과 전문기업인 Bausch+Lomb사의 시야 인공수정체(IOL) LuxLife가 지난 7일 CE마크 승인을 획득했다. 럭스라이프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출시된 enVista Envy 전체 시력 교정렌즈 제품군과 유럽에서 출시된 enVista Aspire 중간 최적화 IOL로 바슈롬은 순수 굴절광학(PRO) 기술을 사용해 이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광학 직경 전체에 걸쳐 끊김이 없이 연속적인 굴절 표면을 제공하며, 두 개의 고유한 연합 광선기술(ART) 존을 통해 빛을 제어하고 초점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회절식 전범위 IOL과 달리 룩스라이프는 망막으로 빛이 손실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바슈롬 외과부문의 뤽 보네푸아 대표는 "이 플랫폼은 출시 이후 시력개선과 환자 만족도를 크게 높여왔다"며 "럭스라이프는 환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설계된 프리미엄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사는 향후 몇 주 안에 유럽에서 이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퍼컴퍼니즈, 2분기 매출 상승

전년 동기대비 6% 증가한 1조 3,631억원 기록… 콘택트는 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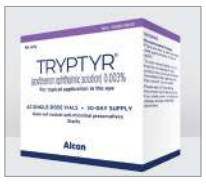
유명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인 CooperCompanies가 지난달 30일 올해 4월 30일자로 마감된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쿠퍼컴퍼니즈의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 증가한 10억 230만달러(약 1조 3,631억원)이며, 이중 쿠퍼비전의 매출은 5% 증가한 6억 6,960만달러(약 9,108억원), 쿠퍼서지컬의 매출은 8% 증가한 3억 3,270만달러(약 4,524억원)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에 따라 쿠퍼컴퍼니즈는 2025 회계연도 재무 지침을 업데이트했는데, 올해 회계연도 총 매출은 41억 700만달러(5조 5,847억원)에서 0.9% 상승한 41억 4,600만달러(약 5조 6,365억원)로 상향됐다.

쿠퍼컴퍼니즈의 앨 화이트 CEO는 "우리는 쿠퍼비전의 데일리 실리콘 하이드로겔 포트폴리오와 쿠퍼서지컬의 진료실 및 수술용 포트폴리오의 두 자릿수 성장에 힘입어 또 한 번 견고한 분기를 달성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과 채널에서 공급을 늘리고,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확보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이들 제품군들이 계속 성장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FDA, '알콘' 안구건조 안약 승인

자연눈물 생성하는 신경 조절제 '트립티르' 3분기에 본격 판매



안과 치료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Alcon 그룹이 지난달 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안구건조증(DED)의 징후와 증상 치료를 위한 안약인 TRYPTYR 0.003%를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알콘이 독립적인 상장 안과의료 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처방 의약품인 트립티르는 각막 감각신경을 자극해 자연적인 눈물 생성을 증가시키는 최초의 신경 조절제다. 이번 승인은 DED 병력이 있는 930명의 환자가 참여한 두 건의 3상 임상시험에 의해 이뤄졌으며, 사용하기 쉬운 단일 용량의 용기로 제공된다.

알콘의 데이비드 엔디콧 CEO는 "이번 승인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DED로 고통 받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에게 알콘의 획기적인 치료제인 트립티르는 빠른 효능으로 상당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는 오는 3분기 미국에서 트립티르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후 다른 시장에도 이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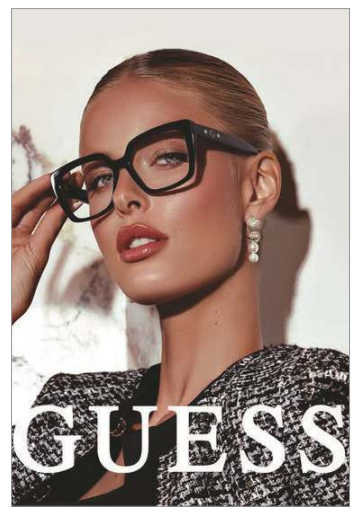
스위스 AKN社, '고티' • '아이테크' 인수

2019년 설립 이후 최초로 미래 목표 위해 안경테와 안경렌즈 회사 동시 인수

스위스의 AKN 그룹이 지난 3일 25년 이상 전 세계에 잘 알려진 독립 안경 브랜드인 götti Switzerland와 프리미엄 안경렌즈 회사인 Eyetech사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AKN이 2019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행한 인수로 이를 통해 그룹을 글로벌 및 프리미엄 안경 부문의 핵심적 위치로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티의 설립자인 스벤 고티 CEO는 "이번 거래를 통해 안경의 미래에 대한 공통되고 일관된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를 찾았음을 확신한다"며 "나는 무엇보다 AKN의 이사회에 합류하는 등 고티의 향후 발전 단계를 계속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AKN의 로사리오 토스카노 CEO는 "우리는 이제 그룹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유통 채널을 강화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며 "고티와 아이테크 인수는 우리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콜린, 게스 브랜드 조기 계약

아이웨어 생산 • 유통 등 독점 라이선스 2040년까지 연장



이탈리아의 아이웨어 기업 Marcolin 그룹이 지난달 23일 패션 브랜드 GUESS와 아이웨어의 디자인과 생산, 그리고 전 세계 유통에 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조기 갱신했다고 밝혔다. 당초 2030년 말까지 계약된 파트너십은 2040년까지 연장돼 양사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게스는 마르콜린의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핵심 브랜드가 됐으며,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완벽하게 구현해 시대를 초월하는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줬다.

게스의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폴 마르시아노 공동 창립자는 "우리는 마르콜린과의 계약 연장을 통해 거의 반세기 동안 함께 협업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성공적인 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마르콜린의 파브리지오 쿠르치 CEO는 "이번 연장 계약 체결에 진심으로 기대가 크다"며 "게스는 우리의 핵심 브랜드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으로 예정보다 일찍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의 표시"라고 밝혔다.

마르콜린, 아디다스와 계약 갱신

2032년까지 안경 디자인, 제조, 유통 연장… 브랜드 전문성 강화 다짐



이태리의 글로벌 아이웨어 업체 Marcolin과 스포츠 브랜드 adidas가 글로벌 아이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오는 2032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번 갱신은 2020년부터 시작된 양사의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것으로, 마르콜린은 아디다스 브랜드의 아이웨어를 디자인, 제조, 유통하고 있다.

마르콜린의 관계자는 "아디다스 스포츠 아이웨어는 고성능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운동선수와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은 물론 첨단 기술 구성과 소재를 특징으로 한다"며 "우리는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마르콜린의 고품질 아이웨어의 전문성과 아디다스의 퍼포먼스 및 라이프스타일의 혁신 전문성이 잘 결합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美 조나스 폴社, 탐스 라이선스 인수

회사 발전 위해 어린이 브랜드 인수 결정… 탐스 라인 개선해 유통 확장 다짐



미국의 Jonas Paul 아이웨어가 지난달 21일 TOMS 아이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인수를 발표했다. 조나스 폴 아이웨어는 탐스 아이웨어의 라이선스 인수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자연스러운 단계이고, 이를 통해 향후 탐스의 제품 라인을 개선해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나스 폴 아이웨어의 벤 해리슨 CEO은 "안경업계 전문가로 탐스의 아이웨어 유산을 계승하고, 브랜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돼 기쁘다"며 "우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탐스의 핵심 가치인 '기부'를 실천하는 동시에 안경 유통을 더욱 확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나스 폴 아이웨어는 2012년 아동용의 스타일리시한 안경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시작해 현재 성인용까지 선보이고 있다.

News



AI 영상 서비스 PERSO.ai, 가입자 20만명 돌파

아이웨어 가상피팅 커머스기업 ㈜라운즈(대표 김명섭·김세민)의 모기업인 AI서비스 전문기업 ㈜이스트소프트(대표 정상원)의 AI 영상제작 및 오토 더빙 서비스 '페르소닷에이아이'(PERSO.ai)가 누적 가입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PERSO.ai는 최근에 가입자 수가 10배 넘게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의 070-8850-8319

변색렌즈 '슈나이더 포토 글로우'엔 장점만 가득

소모비전, 빠른 변색렌즈에 '프레시 그린' 컬러 추가… 50% 특별 할인 행사

㈜소모비전케어(대표 신승종)에서 슈나이더 S-90 시리즈와 함께 선보인 변색렌즈 '포토 글로우(PG)' 시리즈가 빠른 변색과 환원 속도로 안경사들 사이에 화제로 떠올랐다.

특히 포토 글로우 시리즈는 기존의 인기 색상인 클래식 그레이, 고급스러운 브라운에 더해 개성을 표현하는 스타일리시한 프레시 그린 색상을 새롭게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가시광선 영역대(430~700㎚)의 평균 투과율은 유지하면서 눈에 유해한 자외선 차단범위(~410㎚)를 확장한 포토 글로우는 청색광 차단율은 높여 기능성을 강화해 슈나이더 S-90 시리즈와



결합 시 우수한 광학 성능은 물론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모의 관계자는 "이번 S-90 시리즈 옵션인 포토 글로우 시리즈는 굴절률 1.56부터 1.67, 그레이 색상은 1.74까지 최대 85% 농도로 빠르게 변색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자사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슈나이더 드라이브 시리즈, 포브 시리즈와 함께 포토 글로우 시리즈도 50% 특별할인 프로모션이 전개 중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1544-6632

올해 울트라 캠페인은 '16시간의 편안함'

바슈롬, 김아영과 2년 연속 모델 계약 후 '울트라 편안함' 집중 홍보

㈜바슈롬코리아(대표 김형준)가 울트라 원데이의 전속모델로 배우 김아영 씨와 2년 연속 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캠페인 '16시간의 편안함'을 본격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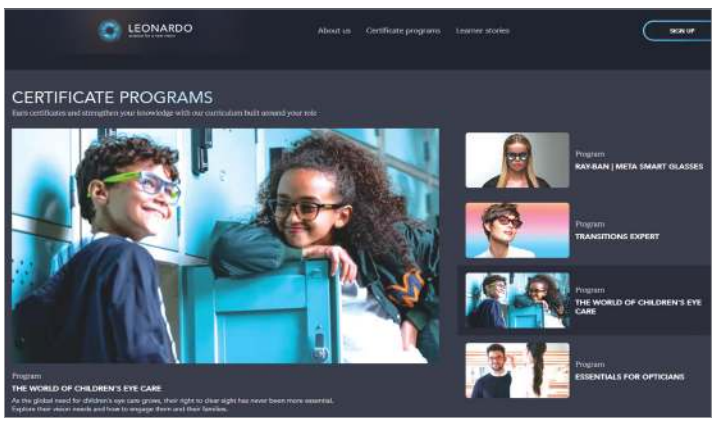
맑고 또렷한 눈빛으로 '맑눈광(맑은 눈의 광인)' 이미지를 구축한 김아영 씨는 지난해 전개된 '하루종일 맑은 눈 렌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편안한 눈의 모습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해왔다. 바슈롬코리아는 이러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바탕으로 김아영 씨와의 파트너십을 연장하고 보다 일관성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바슈롬은 2025년 울트라 원데이 캠페인 기간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의 높은 산소 투과율과 모이스쳐씰 기술을 적용해 최대 16시간 동안 96%의 수분을 유지하는 울트라 원데이의 장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김아영 씨는 울트라 원데이의 주요 타깃인 2030 세대에게 제품의 핵심 가치인 편안한 착용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2년 연속 모델로 선택했다"며 "자사는 앞으로 김아영 씨와 더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070-7167-9922

에실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성황

3년간 '레오나르도'에 안경사 7천명 참여… 온·오프교육 확대 방침

㈜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가 글로벌 통합교육 플랫폼 '레오나르도(Leonardo)'의 국내 런칭 3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운영성과를 공개했다. 레오나르도는 지난 3년간 국내 안경사 7천여명에게 선택받으며 파트너 안경사의 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는 2022년 7월에 첫 출시된 이후 안경사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국내 누적 수강자 총 6,915명, 누적 학습 시간 37,725시간을 기록했는데, 현재 에실로코리아는 레오나르도를 통한 소통형 교육 강화에 나서며 실시간 라이브 세션은 기존의 월 평균 5.4회에서 올해부터는 월 8회로 대폭 확대했다.



에실로코리아의 관계자는 "광학업계 최고 수준의 교육 플랫폼인 레오나르도는 단순한 e-러닝을 넘어 라이브 세션과 대면 세미나, 소규모 맞춤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경사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에실로코리아는 오는 8월에 레오나르도 플랫폼에서 프리미엄 누진렌즈 브랜드 '바리락스' 전문가 과정과 누진렌즈 대면 세미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1600-8121

하파크리스틴, 콜라보 팝업 '성공'

따우전드 매장서 MZ 세대와 '빈크리스틴스 파이샵 스토어' 성공 마무리

글로벌 컬러렌즈 브랜드 하파크리스틴이 지난달 25일 미국식 감성 디저트 카페 따우전드(Thousand)와 함께 성수동 따우전드 매장에서 운영한 '빈크리스틴스 파이샵' 팝업스토어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협업은 하파크리스틴의 브라운 데일리 렌즈 라인인 '빈크리스틴'의 콘셉트 '일상의 커피처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감성'에서 출발, 따우전드의 아메리칸 무드와 파이 디저트 아이덴티티를 접목하는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MZ세대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팝업스토어엔 100여명의 인플루언서와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방문해 SNS 상 수백 건의 자발적 노출을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는데, 한정 수량인 키링굿즈를 받기 위한 고객들로 오픈런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지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파크리스틴의 관계자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감각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이번 협업은 MZ세대와의 소통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며 "자사는 앞으로 하파크리스틴만의 감성을 담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522-7167

사티스코리아, 대형 공장 준공

전북 김제 신규공장에 최신 자동화 시설 완비… 주문렌즈 생산 박차

프리폼 Rx렌즈 전문기업 ㈜사티스코리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김제시에 6,612㎡(약 2천평) 규모의 신규공장을 준공했다. 1천개 특약가맹 목표를 진행 중인 사티스코리아는 이로써 1일 2,500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향후 R&D사업에 100억원의 투자 유치를 전개하는 등 명실상부 최고의 프리폼 Rx렌즈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티스코리아의 관계자는 "자사는 독일 Satisloh社의 자동화 설비와 최신 업그레이드 누진다초점 설계 디자인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명품 누진렌즈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질 방침"이라며 "오는 하반기엔 최신 기능성 렌즈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az0071@naver.com/ 010-8823-1100

그랑프리, 전 회원에 지원금 지급

회원점에 불경기 극복 지금 100만원 지원… 코로나 때는 3차례 지원

국내 유일의 회원제 체인인 그랑프리안경콘택트협동조합(이사장 한광철(그랑프리안경 중계점))이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 회원점에 최근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전 회원점에 3차에 걸쳐 현금 100만원씩 지급한 그랑프리 협동조합이 이번에도 회원 지원에 나선 것.

그랑프리협동조합의 한광철 이사장은 "협동조합 설립 취지에 맞게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회원점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했다"며 "우리 협동조합의 특징은 회원 간의 협동과 합심 그 자체로 이번 지원이 모든 회원 안경원에 조그마한 힘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문의 02)771-9082

25.06 기준
328호 돌파
Franchise Count

안경원가맹률
부문 1위
Franchise Rate

성장브랜드
부문 1위
Growing Brand

가맹점 수익 최우선

Optical Chain Store
으뜸50안경

가맹문의 010-5604-7559

다비치안경, 6월 프로모션 힘찬 출발!

선글라스, 변색렌즈 할인 이벤트… 1020 고객 잔치에는 증정품 풍성

㈜다비치안경이 6월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소비자들이 여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이와 동시에 기말고사 시즌을 맞는 1020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다.

먼저 이번 이벤트는 눈부신 6월에 소비자들이 여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글라스와 변색렌즈를 특별한 가격에 판매 중인데, 단초점 변색렌즈는 최대 2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선글라스는 2만 9천원부터 판매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다비치안경는 자사 브랜드인 다비치렌즈의 스테디셀러 한 달용 컬러렌즈 라이트 시리즈를 6팩 9,900원의 특별 행사가로 판매하고, 다비치마켓을 통해 라이트 시리즈를 예약 구매할 경우 추가로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1020대 고객에게는 6월 한 달간 추가로 블루라이트 차단렌즈를 구매할 경우 자동으로 응모·추첨을 통해 3,000명에게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던킨도너츠 먼치킨 10개팩, 메가MGC 커피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을 증정한다.



문의 02)752-6177

으뜸50 '수원 금곡점' 후끈 개원

대형상가 2층의 중형급 안경원으로 고객 휴식 공간까지 배치

㈜으뜸50안경(대표 정영길)의 새로운 가맹점이 개원하며 여전하게 왕성한 가맹률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에 위치한 수원 금곡점이 새롭게 개원한 것. 대형상가 2층에 자리 잡은 수원 금곡점은 96㎡(약 29평)의 중대형급 안경원으로 특히 17㎡(약 5평) 규모의 테라스 휴식공간을 배치해 고객들이 안경을 맞춘 후 편하게 대기하도록 배려해 주목받고 있다. 체인본부의 관계자는 "안경사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가맹률이 계속 이어지는데 감사를 드리고, 자사는 앞으로도 모든 가맹점이 만족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안경업계의 믿을 수 있는 체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의 1522-1584

아이씨 베를린, 한국형 선글라스 출시

한국인을 위해 특별하게 엄선한 선글라스 5종 시리즈 출하

㈜지아이비(대표 장창균)가 대표 브랜드 아이씨 베를린의 신제품 '코리아 에디션 커스텀 핏 선글라스'를 선보여 안경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제작되는 독일의 프리미엄 아이웨어인 아이씨 베를린의 이번 코리아 에디션 커스텀 핏 컬렉션은 특별히 한국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을 별도로 선별해 국내인에 잘 어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데일리 룩을 완성시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씨 베를린의 관계자는 "최상의 착용감을 자랑하는 이번 신제품은 충격 시에도 부러지지 않고, 템플이 분리되는 힌지 구조와 나사가 없어 공구 사용이 필요 없는 컬렉션"이라며 "손으로 분해·조립하는 조립식 스타일인 이번 시리즈는 안경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선글라스 쉐입으로 지난 2월부터 총 5모델로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6205-5909

배럴, 신상 미러 도수수경 출시

전문가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 강조한 도수수경으로 인기 예감

국내 대표 워터스포츠 브랜드 배럴(대표 박영준)이 안경 착용자들의 오랜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선명하고 안전하게 수중활동을 지원하는 미러 도수수경 신제품 2종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도수수경은 전문선수 및 수영 애호가들을 위한 고기능 '글라이드 미러 수경'으로 사용자의 시력에 맞춰 -1.0부터 -8.0까지 0.50단위로 다양한 도수 선택이 가능하다. 현재 배럴이 엄선한 전국 150여 안경원에서 지정 판매 중인 배럴의 관계자는 "이번 출시한 글라이드 미러 도수수경은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자사의 철학이 반영된 고기능의 결과물"이라며 "자사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반으로 향후 아동용과 전문가용의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031)245-6867

꼼꼼안경 '인천 논현점' 大개원

일반 안경원서 리뉴얼 개원… 본부, 1:1 예약 시스템 적용으로 200% 성공 자신

꼼꼼안경의 인천 논현점이 지난 5월말 화려한 오픈 이벤트와 함께 본격 개원했다.

꼼꼼안경의 제4호점인 인천 논현점은 기존 타 안경체인에서 리뉴얼 오픈한 가맹점으로 수도권지하철 수인분당선 논현역 인근에서 20여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중에 이번에 ㈜지앤디의 검증된 패러다임인 꼼꼼안경으로 리오픈해 새로운 콘셉트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꼼꼼안경 체인본부의 관계자는 "우리 체인은 가맹비, 보증금, 월정료가 없는 '3無 정책'으로 가맹점주의 초기 오픈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검안과 피팅 전문가들의 현장 코칭 도입으로 200% 성공 경영을 보장하는 체인"이라며 "특히 꼼꼼안경은 차별화된 1:1 예약 시스템 도입과 마케팅 지원 등으로 성공 안경원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1811-7576

안경존중 16호 '종로점' 축 개원

서울 평창동서 산뜻 개원… 6월 중에 '군자역점' 연속 오픈 예정

㈜안경존중(대표 김광영)이 사업 3년차를 맞아 빠른 가맹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의 부촌 지역인 서울 평창동에 제16호점인 종로점이 개원한 것. 안경존중 종로점은 인근에 서울예고와 함께 쇼핑, 외식점 등을 두루 겸비한 최적의 상권에 100여대의 주차가 용이해 고객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체인본부의 관계자는 "가맹점의 성공을 돕는 안경존중의 성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안경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경존중은 종로점에 이어 6월 중에 17호점인 군자역점이 개원할 예정이다.

문의 010-8127-9938

ABC누진다초점, 가맹률 '쭈~욱'

서울 8호점 '강서구점' 가맹… 가맹원장 조사서 99%가 본부에 '만족' 응답

ABC누진다초점(대표 최진욱)이 순조로운 가맹을 전개 중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의 중심상권에 위치한 강서구점에 입점함으로써 서울의 제8호점이자 전국 제17호점의 가맹률을 기록한 것.

8k-3d 최신식 가공기술로 제작된 ABC누진렌즈는 고객 클레임이 거의 없을 만큼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기록 중으로, 이번에 오픈한 강서구점은 일반 고객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안경원이기에 향후 급격한 발전이 전망되고 있다.

ABC누진다초점의 관계자는 "우리 가맹 원장님들의 체인에 대한 만족도가 현재 99% 이상일 만큼 본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체인의 가맹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10-6630-4977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항균코팅
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녹농균 99.9% 차단

중굴절
UV블루라이트 차단
420렌즈 사용!

since 1984
Guard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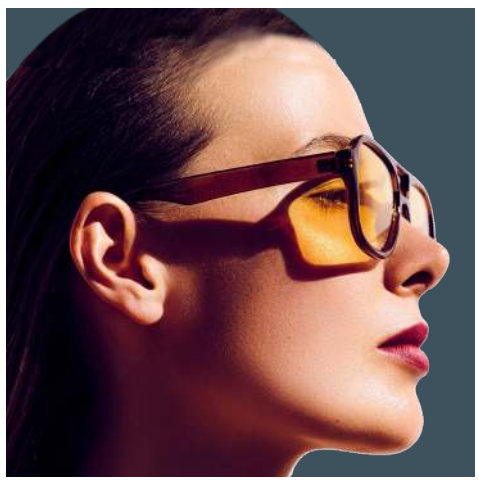
'가디안'



야간운전과 골프장, 특히 백내장 수술 후 눈을 보호하는 최고의 렌즈로 평가받는 가디안에서 Y2 변색렌즈를 개발 출시합니다.
빠른 전환속도와 수려한 색상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급 가디안 변색렌즈는 자외선 99%와 블루라이트를 우수하게 차단합니다. 가디안 변색렌즈는 야간운전의 빛 번짐은 물론 골프장, 등산 낚시 등 모든 야외생활에서 최고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가디안, 항균 처리로 눈 건강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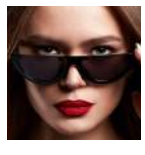












가디안렌즈 진품 구별법

- 안경렌즈에 표시된 입김마크 'Guardian'을 확인하세요.
- 빨간색의 항균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안경렌즈 봉투에 적힌 'Guardian 가디안' 브랜드를 확인하세요.

가디안렌즈의 항균 코팅 처리…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 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검사 통과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안경렌즈 한 장도 철저하게 검사한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낱벌도 개인맞춤으로 생산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봉투에 출고날짜를 표기하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평면(PL)만 여벌 공급합니다.

생산범위

- 야간 운전용 항균렌즈 Y2
- 골프 전용 항균렌즈 K3
- UV 청광 화이트 항균렌즈

최병갑 前회장, 사랑과 나눔 실천

몽골 선교단에 선글라스 후원… 최 회장 '선교에 도움되길 기대'

경기도안경사회의 제21대 회장을 역임한 최병갑 前회장의 나눔 봉사가 안경업계의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 前회장이 수원 중앙침례교회의 이글스 선교단에 몽골의 선교자들에게 선글라스 등을 후원한 것.



최 前회장은 수원시 샤론안경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교회 장로로서 선교자들의 뜻 깊은 여정에 도움이 될 제품을 제공해 기쁘다"며 "본인의 봉사는 오로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강조한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31)242-7365

저시력 학생 봉사에 감사 물결

OVDRA Korea, 국립서울맹학교서 시기능평가… 13년째 봉사 활동

OVDRA Korea 국제지부(한국시기능훈련교육협회, 이사장 신효순)의 저시력 학생 대상의 시기능평가 봉사활동이 13년째 이어져 안경업계와 관계 학부모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시각장애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돕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국립서울맹학교에 재학중인 저시력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진행되어 주목을 받은 것.

이번 봉사는 저시력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신체 균형과 협응을 포함한 조절기능, 눈모임기능, 융합기능, 안구운동기능, 입체시, 시각-운동통합기술, 시각인지발달 기술 등이 이뤄졌는데, 이날 봉사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저시력이 있는 자녀에게 시기능훈련 치료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봉사를 주최한 국립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저시력이 있는 자녀들에게 정기적인 평가와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70-8274-3280

배구한 회장, 아프리카 기니서 봉사

햇빛 강한 기니 람반서 선글라스 증정… 바슈롬코리아 등 물품 지원

국제보건의료안경자원봉사회(회장 배구한)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굿뉴스월드에서 진행하는 아프리카 기니 의료봉사에 참여해 안경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서아프리카 기니를 방문한 봉사회는 람반의 과학교육대학교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검안과 함께 보안경, 선글라스, 근용안경 등 1만 3천여장을 제공했다.

봉사회의 배구한 회장은 "강한 햇볕으로 각막 손상을 입은 환자가 많은 기니는 선글라스가 꼭 필요한 실정으로, 선글라스를 많이 준비한 덕분에 보람 있는 봉사가 되었다"며 "이번 봉사는 마산국제보건의료안경자원봉사회의 지원과 더불어 바슈롬코리아에서 인공눈물 1만명 분을 제공해 다시 한 번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안경사회의 제16~17대 회장을 역임한 배 회장은 그간의 꾸준한 안경봉사로 지난 2019년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한 바 있다.

문의 055)223-8791

KIOF, 더위에도 전시회 준비 한창

수도권 국제광학전으로 서울 코엑스 마곡전시장서 11월 20일 개막

제1회 국제안경광학산업전시회(KIOF)가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전시장에서 개막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수도권에서 부활한 국제광학전'으로 안경업계의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 KIOF는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서울메쎄(대표 박병호)·엑스포비전(대표 진재호)의 공동 주최로 국내외 200개사의 300여 부스 규모로 개최돼 벌써 안경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KIOF사무국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사무국 메일(kiof@seoulmesse.com)을 통해 부스 신청을 접수 중이고, 조기에 신청하면 특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KIOF에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안광학산업 전문세미나, 안광학 분야의 전문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문의 02)2284-0014



각종 매체에 보도된 안경 종합뉴스





- ▶AI가 바꾼 시선의 기술… 스마트 안경의 귀환(중앙일보/ 6월 1일)
- ▶"고도근시, 녹내장 발병 위험 높인다"(데일리메디/ 6월 2일)
- ▶당뇨병성 백내장, 노인성보다 진행 빨라 수술 시기 놓칠 수도(국민일보/ 6월 3일)
- ▶'구글 안드로이드 XR • 레이-밴 메타' 스마트안경 시장이 움직인다(IT동아/ 6월 4일)
- ▶정기 안과 검진, 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디지털조선TV/ 6월 5일)
- ▶토익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43명이 베끼려다 들통 日 '부정시험' 일파만파(서울신문/ 6월 6일)
- ▶값도 무게도 더 가볍게… 진짜 안경으로 보는 가상현실(국방일보 /6월 8일)

2PM 닉쿤, 한국대표 '플럼' 착용

팬텀옵티칼, 2PM의 닉쿤에 협찬… 오버사이즈 하금테에 매료

㈜팬텀옵티칼(대표 장용찬)의 대표 브랜드 PLUME이 그룹 2PM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닉쿤 씨에게 협찬됐다.



그에게 제공된 플럼의 P-2970 컬렉션은 메탈 판을 정교하게 가공해 제작한 하금테 스타일로 프런트 림 끝부분을 살짝 내려 포인트를 주었고, 림 상단엔 고급스러운 유광 에폭시가 도포돼 스타일리시함을 더한 컬렉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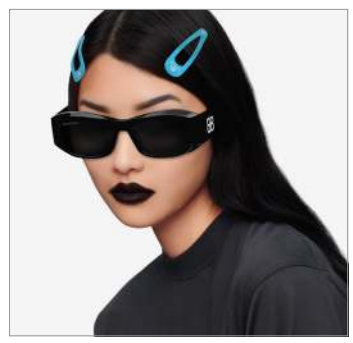
플럼의 관계자는 "림 하단은 골드와 실버 도색으로 투톤 컬러가 조화롭게 어울려 착용 시 포인트가 되고 있다"며 "템플은 별도의 아세테이트 팁이 부착돼 안경의 무게 밸런스를 맞춰 흘러내림을 차단하고, 피부에 메탈 소재가 직접 닿는 것을 막아 땀이 많은 여름에도 니켈 알레르기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070-4257-6102

특별한 '발렌시아가' 신상 라인 출시

최초로 시그니처 라인 런칭… BB 로고에 강렬한 존재감 발산

케어링 아이웨어의 '발렌시아가' 브랜드가 새로운 2025 S/S 아이웨어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발렌시아가는 특화된 '시그니처(SIGNATURE)' 라인을 선보였는데, 해당 컬렉션의 템플 양쪽에는 시선을 모으는 대형 에나멜 BB 로고가 더해져 브랜드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컬렉션은 옵티컬 안경과 선글라스로 구성되며, 두꺼운 아세테이트 소재로 제작된 조각 및 각면 처리된 프런트 디자인과 오버사이즈 렌즈가 어우러져 강렬한 대비와 입체적인 실루엣을 완성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문의 010-6394-7071

린드버그, 신세계백화점 본점 입점

금강안경과 협업으로 명동 신세계 본점에 스토어 리뉴얼 오픈

케어링 아이웨어의 덴마크 럭셔리 브랜드 린드버그가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스토어를 리뉴얼 오픈했다. 금강안경과 협업을 통한 이번 스토어는 새 단장되어 린드버그 특유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덴마크 디자인 철학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났다.

'장식 없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린드버그의 철학을 반영한 신세계백화점 스토어는 모든 디테일이 자체적으로 디자인됐는데, 다크 그레이 콘크리트로 마감된 외관은 덴마크 디자인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달하며, 오픈형 구조는 덴마크식 라이프스타일 '휘게(Hygge)'의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고객의 자연스러운 방문을 유도한다. 또한 반투명한 곡선 형태의 슬레이트 벽은 큰 장벽 없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구분해 개방적이면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프리미엄 컬렉션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한편 린드버그 바이 금강안경 스토어의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지난달 29일 진행된 이벤트에는 배우 이종석 씨가 참가, 깔끔하고 심플한 린드버그 나우6655 컬렉션을 착용해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선보여 눈길을 모았다.

문의 010-6394-7071

"**자유로운** 안경 **선택, 선명한** 일상!"

실력을 세우다 매출을 키우다!

글라스타 안경 체인은 **매장**만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고객 만족과 **가맹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글라스타 안경
GLASTAR

"피팅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누진렌즈 처방에 자신 있습니다."

"저는 시력 검안에 자신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매장 경영을 위한 라온비전 ERP 시스템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상품 가격

NAVER 매장별 맞춤 검색 마케팅 지원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이미지입니다.

체인 가맹이 궁금하다면?

010-8677-8143



김현선 검안사의
안광학 리포트

소아 청소년의 근시 억제를 위한 아트로핀 치료와 안경사 역할

어린이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별도의 검진 필요… 반드시 정기적으로 사위 측정 병행돼야

소아 근시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절마비제인 아트로핀을 저용량으로 점안하는 치료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입증 받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시의적절한 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아트로핀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약물 투여 후 시력검사를 받고, 그 처방값을 토대로 안경을 착용하게 된다. 이때 안경사는 시력 처방값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의 약물 치료 이력과 현재 시각 기능 상태를 고려해 조제·가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장년층에게 새 안경을 맞출 때 약물 복용력이나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것처럼,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아트로핀 사용 여부와 용량, 치료 경과에 관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최근 관련 학술지엔 아트로핀 처방 후 근거리 시력 문제를 겪는 어린이들의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2025년 4월 미국에서 사라 아만(S. Aman)이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8세 어린이의 사례로 0.01% 아트로핀 처방부터 시작하여 근시가 지속 진행되자 투여량을 점차 늘려 7년 후에는 0.2%까지 투여하게 되었다. 이 어린이는 이후 근거리 시야에서 복시를 호소하며 내사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발표자는 부분적인 운동 마비로 인해 조절력이 과도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라 아만은 내사시는 조절과 수렴의 연계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아트로핀 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거리 시력교정을 권장했다. [1]

또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벼운 내사위를 가지고 있던 8세 어린이에게 0.01% 아트로핀 처방을 시작하자 근거리 내사위가 1도에서 8도까지 증가했다. 근시가 진행됨



에 따라 11세 무렵 0.025%로 투여량을 증가하자 복시와 근거리 시력 저하가 나타났고, 근거리 작업 시 +3 디옵터의 추가 시력 교정이 필요해졌다. 결국 아트로핀 투여는 중단되고, 초점 조절 안경렌즈를 통해 교정을 하게 되었다. [2]

아울러 미국의 에릭 초 박사가 발표한 잘못된 아트로핀 처방으로 인해 후천성 내사시가 생겨 비전테라피를 받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래 0.01%가 처방되었지만 실수로 1% 농도의 아트로핀이 처방되어 양안시의 기능을 무너뜨려 AC/A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내사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아트로핀 투여를 중단하고 시각 기능 훈련을 시작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12⊿의 프리즘 보정이 필요했다. 치료 초기에는 양안 융합을 위해 45⊿의 프리즘이 필요했지만, 약 30회의 테라피 진행 후 12⊿ 프리즘만으로 융합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 사례 역시 소아에게는 아트로핀 처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3]

이러한 사례들은 안경사가 소아 청소년 환자를 응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시사한 중요한 내용이다. 아트로핀 치료 중인 어린이에게는 정기적인 사위 측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복용량이 변경된 시점에는 다시 재검사가 필요하다. 아트로핀은 낮은 용량에서도 일부 환자들에게 조절근의 일시적인 마비를 유발하여 근거리 사위가 증가하거나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아트로핀 처방 시 환자의 양안시 기능과 조절 능력을 3~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 과정에서 안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해당 영역에서 안경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또한 근거리 시력 문제는 종종 간과되곤 하지만, 소아의 시각 발달 과정에서는 최대 조절력, 사위, 근거리 시야의 질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아 청소년에게 "가까운 곳이 흐릿하거나 두 개로 보이지는 않나요?"라고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이 단순한 시력 교정을 넘어 전체적인 시각 기능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1) S. Aman, et al.; Esotropia caused by low-dose atropine for rapidly progressive myopia in a 15-year-old boy, DOI: 10.1016/j.jaapos.2025.104122
2) Englisch CN et al. ;Reversible decompensation of pediatric esophoria after atropine dose increase from 0.01 to 0.025% for myopia progression prophylaxis; Ophthalmologie, 2025;122(3):231-234.
3) https://reviewofmm.com/the-importance-of-binocular-vision-in-managing-myopia-progression/

BOOK | 손재환 원장의 '장사 교과서' → 고객편⑩



친절이 과하면 주고도 욕 먹는다

장사에 성공하려면 싸게 팔거나 기술이 있거나 친절하면 된다. 그런데 친절을 무기로 장사를 하는 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친절해야 되는 업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고객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친절이 과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보통 우리는 모든 고객들에게 친절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선을 넘는 오버액션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하고 느끼고 오해의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싹싹하고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 뭔가 팔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닫혀버린다.

장사에서 가장 좋은 친절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너무 절도 있는 경우도 친절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 매장과 달리 장사 가게에서 90도로 깍듯이 고개를 숙인다든지 하면 고객들은 부담을 느낀다. 과잉친절로 느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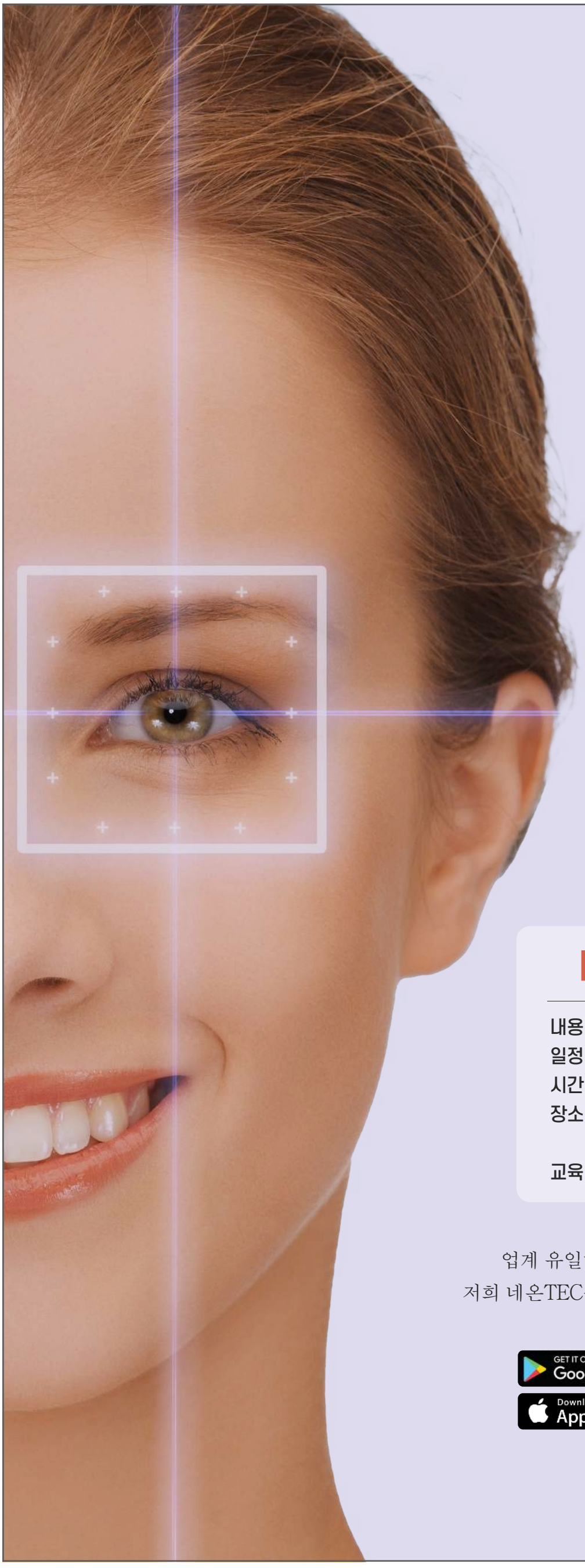
매장에서는 보통 약간만 더 친절하면 되는데, 종종 직원들이 너무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걸 좋아하는 고객들도 간혹 있지만, 요즘에는 많이 오해를 산다. 백화점, 면세점 같은 곳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과잉친절을 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동네에서 장보는 게 전부인 아줌마에게 그러면 거부반응이 생긴다. 그런 면에서 친절도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현해야 한다. 과잉친절은 역효과다.



사진은 손재환 원장이 운영하는 아이데코 의왕점 내부 모습

예를 들어 안경은 오래 착용하다 보면 코받침 부분이 누렇게 변질된다. 안경원에 왔을 때 그걸 교체해주는 게 거의 일반화돼 있다. 그런데 나는 언젠가부터 "해주지 마라"고 이야기한다. 고객이 원할 때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다. 오래 쓰면 때가 끼니까 예전에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서비스로 해주면 고마워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어딜 가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다. 그래서 원하는 고객만 기분 좋게 해주라고 말한다.

사실 과잉친절은 경계선이 모호하다. 잘못하면 과잉친절, 잘하면 친절인데 적절하게 잘 컨트롤해야만 친절이 된다. 그 기준은 고객이 원할 때 해주는 것이다. 대신에 고객이 원할 때는 기분 좋은 생색이 있어야 한다. 고객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의 코받침이 더러워도 처음부터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고객이 퉁명스럽게 "이것 좀 갈아주세요"하면 "예"하고 끝내지 말고, "예~ 안경 코받침이 더럽네요. 제가 빨리 갈아드릴게요"하고 한 번 더 리액션하는 것이다. 말은 조금 많이 하면 좋다.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해요. 빨리 교체해드릴게요"하면서 미안해하는 느낌을 준다. 기분 좋게 하면서 생색도 내고, 원하는 걸 들어주니까 처음엔 기분이 좀 나빴어도 금방 누그러진다. 〈끝〉 – 다음 호부터는 '직원 편' 연재함.



Neon
눈이 자유로운 세상

눈(眼)이 건강하고 젊어지는
'네온 RGP렌즈'

'네온 RGP렌즈'는
눈이 좋아하는 렌즈입니다

네온 RGP 렌즈 정기교육

내용 : RGP렌즈 초급자 교육
일정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시간 :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5층 1524호(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
교육 문의 및 신청 1644-2806

업계 유일하게 자동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네온TEC.
저희 네온TEC는 첨단 RGP렌즈의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자동 처방 프로그램 이용방법

네온렌즈 검색 → 어플 설치 → 자동처방 실행

주문전화 | 1644-2806

Star EyeWear

아이웨어의 상큼한 파워! 또 다른 나를 찾는다!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과 감각미가 물씬 풍기는 다양한 아이웨어들. 각종 인쇄 매체나 TV 속 연예인들의 선글라스 패션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유행의 패러다임 속에서 최근 트렌드 세터 연예인들이 착용한 아이웨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중의 시선을 한순간에 모으는 대세 스타들의 화려한 아이웨어. 최신 안경 유행, 흐름을 따라가보자.



가수 겸 배우 윤은혜가 제21대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윤은혜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볼캡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음을 인증했다.



그룹 비투비의 멤버 프니엘이 지난달 30일 해외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부터 입국했다. 그가 선택한 오버사이즈 림의 엘로우 렌즈가 장착된 선글라스가 유니크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아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해외일정 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오벌 스타일의 짙은 선글라스가 트렌디함과 개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걸그룹 배드빌런이 지난달 30일 김포공항을 통해 공연일정을 마치고 일본에서 입국했다. 배드빌런의 **휴이**는 날렵한 인상의 캣츠아이 선글라스로 스타일리시한 룩을 과시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이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만 가오슝으로 출국했다. 볼드한 프레임의 틴트 선글라스가 남다른 매력을 전해주고 있다.



걸그룹 아이브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일정 참석 차 중국으로 출국했다. 아이브의 멤버 **레이**는 짙은 농도의 선글라스를 통해 엣지 있는 공항패션을 선보였다.



배우 이유비가 지난달 31일 해외일정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만으로 출국했다. 미니멀리즘의 엷은 프레임을 가진 오벌형 도수테를 통해 지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가 지난 4일 서울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열린 포토세션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우지는 라운드스퀘어 림의 안경으로 멋진 '안경 오빠'를 연출했다.



걸그룹 엔믹스의 멤버 배이가 지난 2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일정을 마치고 일본에서 입국하고 있다. 라운드스퀘어의 오버사이즈 안경만으로 산뜻한 룩을 완성해냈다.



영화 '신명'의 제작보고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배우 명계남**이 짙은 농도의 검은색 선글라스로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표현했다.

빛나는 '룩시'의 블로우 라인 빈티지 하금테



진한 인상을 풍기는 블로우 라인을 현대적인 티타늄 기술과 IP 이온도금으로 새로운 하금테로 탄생한 룩시 아이웨어의 33010 컬렉션. 깔끔하고 미니멀한 클래식 라인의 엣지 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컬렉션은 25년 경력의 아이웨어 디자이너의 노하우가 담긴 미니멀한 빈티지 하금테로 30~50대 전문직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룩시 아이웨어 || 문의 02)954-4257

Entertain-ment



효민의 비키니&선글라스 세간에서 화제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 효민이 반짝이는 해외 휴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6일 효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여름이네요! 워터밤 서울 HMSW 부스에서 곧 봬요'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서 오버사이즈 선글라스에 두건과 비키니를 입은 채 환한 미소를 보내고 있다.

제주서 카페 운영하는 박한별 6년 만에 파이팅 외치며 외출



배우 박한별이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일 박한별은 자신의 SNS에 '6월 시작. 파이팅'이란 짧은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라운드스퀘어 림의 오버사이즈 안경을 착용한 후 청재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음료를 앞에 두고 셀피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박한별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카페 운영에 전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리베이터 셀피 조아영 셀피 촬영은 '장소 불문'



걸그룹 달샤벳 출신 배우 조아영이 엘리베이터에 찍은 셀피 사진을 팬들과 공유했다. 조아영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 공간에 '인스타 너무 쉬었다'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오버사이즈 림의 클리어 안경테를 쓴 조아영은 강아지 사진이 프린팅된 하얀 박스 티셔츠를 입고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한 손에 핸드폰을 든 채 얼굴의 반을 가리고 셀피를 찍은 모습을 연출했다.



TIOT 금현준의 애착안경은 '플럼에디터'

금현준, 방송 등서 플럼에디터 요크 컬렉션 수시 노출… 보스턴 쉐입에 매력

인기그룹 TIOT의 멤버 금현준이 근래 방송과 자신의 SNS 등에 자주 노출되는 안경이 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애착안경으로 떠오른 컬렉션은 플럼에디터의 YOKE C2 제품으로, 이는 볼드한 아웃라인을 가진 오버사이즈의 라운드스퀘어 림이 색다른 매력을 전달하고 있다.

넉넉한 사이즈의 보스턴 쉐입의 림 형태와 키홀 브리지가 클래식함을 강조한 이 컬렉션은 특히 플럼에디터 특유의 리벳 디자인과 템플 팁 부분에 라이닝 디테일의 메탈링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프레임과 템플은 고급 아세테이트 시트가 적용됐고, 티타늄 소재의 조정이 가능한 코받침을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세월도 피해가는 하지원 거리서 눈부신 화보촬영

배우 하지원이 길거리 화보 촬영 사진의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멘트 없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파란 틴트렌즈가 장착된 오버사이즈 림의 선글라스를 착용한 하지원은 하얀 오프숄더에 포즈를 취하며 화보 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의 화보 촬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민들이 찍은 하지원의 실물 사진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미국 LA 찾은 산다라박

레드와 선글라스 빅매치… 아무나 소화 못하는 스타일도 거뜬



걸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산다라박이 휴가를 즐기는 일상을 공개했다. 산다라박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패스트푸드 음식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유니크한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산다라박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푸드코트에서 비니를 쓰고 빨간 색상의 오프숄더에 가디건을 입은 채 핸드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 이를 접한 팬들은 최신 댓글에서 '저런 선글라스 아무나 소화 못해' 'LA 지금 긴급사태인데 괜찮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브이로그 화보 같은 고현정 코트에 선글라스 찰떡 매치

배우 고현정이 브이로그로 근황을 알렸다. 지난 2일 고현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브이로그 마지막 편집 중에 몇 컷들. 그리고 제 곁에 오래 함께하는 라이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서 검정색의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고현정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머리를 한쪽으로 치우친 포즈를 취해 마치 화보 같은 우아함을 뽐냈다.

daing MEDIA (두잉미디어) Optic Weekly
우(04501)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185, 101동 1106호 (만리동2가, KCC파크타운)
대표전화 : (02)-313-5585 FAX : (02)-363-0345
이메일 : opticweekly@naver.com 홈페이지 : www.opticweekly.com
취재국 / 영업국 / 광고신청 / 구독신청 : (02)-363-3885
등록일 : 2010년 1월 6일 등록번호 : 서울 다09905(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신청 : 우리은행(1005-004-387851) 예금주 : 두잉미디어
발행 : 두잉미디어 옵틱위클리 발행인 : 김태용 간별 : 격주간 구독료 : 년24,000원 1부 : 1,000원

Quiz SUDOKU 기초 공략

4		5	7	2	3			
	9			5	1			
1			8	9	6		4	
								4
	3	6		4	8	5		1
8	4		1	7		3	6	2
	5	1			4			
		8	5		7	4		9
7			3	6		1	5	

SUDOKU 정답 〈지난호〉

4	6	9	7	2	1	8	3	5
7	8	2	4	5	3	9	1	6
5	1	3	8	6	9	2	7	4
3	9	5	1	8	4	6	2	7
2	7	8	3	9	6	5	4	1
1	4	6	5	7	2	3	9	8
8	5	1	2	3	7	4	6	9
6	2	4	9	1	5	7	8	3
9	3	7	6	4	8	1	5	2

▶ 스도쿠 게임 규칙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3. 가로 세로 3×3칸의 모든 블록에도 1~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간다.



No.1 다비치안경과 함께 하세요!

DAVICH

1 **가맹점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략적 마케팅 활동과 맞춤 컨설팅 시스템 제공

2 **안경사 전문화**에 앞장 섭니다.
사관 · 공채를 통한 전문 인재 보급,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3 **전문적인 상권분석**을 통해 매장을 오픈합니다.
지역핵심 상권의 분석

4 어려움은 나누고 **함께 성장**합니다.
최대 3억 창업 대출 프로그램, 업계 최초 법률 상담 지원







다비치안경은 **전문적이고 다채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DAVICH 릴레이 오픈중

2025

5월	만촌점
	천안터미널사거리점
	대구중동네거리점
	평택고덕신도시점
6월	하남시청앞점
	내포신도시점
7월	용인동백점
8월	파주야당역점

[오픈예정지역] 해당지역 안경사님께 오픈 우선권을 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 상일동역 / 강동구청역 강남구 : 강남구청역 / 강남역 / 수서역 / 논현동 강서구 : 까치산역 / 화곡역 / 신방화사거리 관악구 : 낙성대역 / 난곡사거리 광진구 : 건대입구역 / 자양사거리 / 군자역 / 아차산역 구로구 :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 구로구청사거리 / 개봉역 / 대림역 금천구 : 가산디지털단지역 노원구 : 수락산역 / 상계역 / 마들역 / 중계학원가 동대문구 : 회기역 / 청량리역 / 전농동사거리 동작구 : 상도역 / 흑석역 / 남성역 / 노량진역 / 장승배기 마포구 : 공덕역 사거리 / 합정역 / 망원동 / 디지털미디어시티 서대문구 : 홍제역 / 가좌동 모래내시장 서초구 : 반포동 고속터미널 / 교대역 / 남부터미널 / 양재 성동구 : 행당동 무학여고사거리 / 성수동 성북구 : 석계역 / 석관동 / 종암동 / 성신여대입구역 / 한성대입구 송파구 : 문정동 법조타운(가든파이브) / 거여역 / 개롱역 영등포구 : 당산역 / 영등포구청 은평구 : 은평뉴타운 종로구 : 종각 / 종로3가 / 창신동 / 대학로 / 경복궁역 중구 : 을지로4가역 / 신당역 / 약수역 사거리 중랑구 : 신내동 / 동부시장 영남 부산 : 센텀시티역 벡스코 / 부산시청앞 / 연산동 / 명지국제신도시 / 기장정관 울산 : 화봉동 대구 : 지산동(지산역 사거리) / 침산동 / 화원삼거리 경북 : 구미 옥계동 / 문경 경남 : 진주 평거동 경기 광명 : 광명KTX역 / 철산역 / 소하동 부천 : 소사본동 / 송내역 성남 : 모란역 / 정자역 / 오리역 시흥 : 장현지구 / 목감지구 안산 : 선부동 / 고잔동 안양 : 범계역 / 인덕원 용인 : 성복동 / 보정동 / 구성마북지구 / 기흥구청 / 역북지구 의정부 : 회룡 인천 : 동춘동 / 신현동 / 석남동 / 소래포구역 / 서구청 / 서창지구 / 영종도 / 제물포 파주 : 금촌동 / 금룡역 / 운정지구 / 문산읍 고양 : 탄현역(중산동) / 주엽역 / 마두역 / 풍동지구 / 삼송지구 김포 : 걸포지구 과천 : 과천시청역세권 남양주 : 별내신도시 / 도농역 동두천 : 지행역상업지 양주 : 회천지구 양평 : 시장~터미널 의왕 : 오전동(의왕 이마트 앞) 화성 : 화성시청신도시 안성 : 공도 강원 홍천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 청주(복대동) 충남 배방읍 아산역 / 천안행정타운 광주 금호지구 / 일곡지구 / 봉선동 / 운암동 전남 여수 웅천동 / 목포 남악신도시

[브랜드 대상 내역]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다비치안경!

2014 소비자의 선택 1위 브랜드 선정 · 2014 글로벌 브랜드 컴퍼런시 안경원 부문 1위 브랜드 선정 · 2014 대한민국 올해를 맞춘 히트상품 퍼스트 브랜드 누진안경 선정 · 2018 미래정조 경영 우수기업 대상 선정 · 2019 100대 프랜차이즈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 · 2019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 베이컬럴스케어대상 · 2025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14년 연속 수상 ·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 산업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가맹상담문의 010-3794-1331 - 이메일 문의 가능합니다 - jewdas305@davich.com

다비치 안경 **다비치** 보청기 **다비치** 홀딩스 KVISION

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위클리 2025년 6월 15일 발행 (370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JIN OPTICAL 국내 최저가 공급 www.opticalomarker.com
도수렌즈 완제품 국내 최다보유 ● CR 평면, 밀러렌즈, 각종 평면렌즈, 다량 보유
취급 품목 CR39, 중굴절, 고굴절, 중누진 변색렌즈, 고굴절 청광 차단렌즈
중·고굴절 컬러 초발수 렌즈 등 각종 Rx렌즈 취급
진광학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선입금 • 현금 판매만 가능,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
TEL. 02-773-1001, 752-2810 • FAX. 02-757-8173, 775-1002

기술이 브랜드가 되는 안경 체인

「無極眼鏡」

[무] [극] [안] [경]

누군가는 상품을 팔고,
우리는 기준을 만듭니다.

상담 및 가맹 문의 010-8562-7424